

Social

현대자동차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직원들과 협력사들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인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 3.1 임직원
- 3.2 협력사
- 3.3 고객
- 3.4 사회공헌



어린이들이 상상하는 미래 모빌리티를 그리는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 수상작

임직원

전략적 인사관리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전환, 자율주행·모빌리티·인포테인먼트·커넥티드카 기술 경쟁 등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PBV, AAM, 로보틱스 등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 강화와 연계한 인사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신성장 동력으로 대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채용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임직원 성과평가, 역량파악, 조직몰입도, 사회관계 등의 정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 정보를 종합하여 중장기 관점의 인사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 및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성장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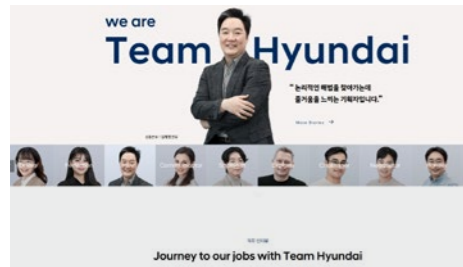
인재채용 및 유지

인재채용 및 유지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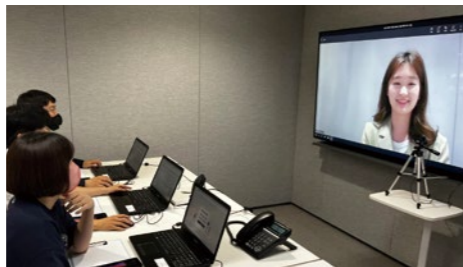
COVID-19의 글로벌 확산세 지속, 주요 부품 수급 부족, 미래 모빌리티로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규모감 있는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 일반직 및 연구직 기준 약 2,000명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채용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되는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전체 일반직 및 연구직 채용의 약 88%를 청년 고용(만 19~34세)으로 진행하여 청년층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양적인 채용 확대와 함께 채용 프로세스 개편, 내부 IT 시스템과 대외용 홈페이지 신규 구축, 채용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현지 채용 환경과 청년층 선호에 맞는 입사자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채용 방식의 질적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재채용 전략

- 미래 전략기술 분야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 및 적시 확보
- 현업부서 주도 직무 전문성 중심 상시 채용 제도 지속 운영 및 개선
- 국내외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H-Experience 등 다양한 인턴십 운영
- 경력채용 시 직원 사회관계 활용한 채용 대상자 추천 제도 시행
- 채용 관련 업무 및 비용 효율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 채용 프로세스 확대



채용 홈페이지



비대면 면접



직원추천 제도

직원 전환배치 활성화

현대자동차는 외부의 우수인재를 적시에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기존 직원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환배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인력소요가 발생한 현업부서의 요구조건과 부서 이동 희망 직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융화, 업무 생산성 향상, 역량 및 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환배치를 실시합니다. 전환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규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 정착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기존 인력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여 관리자로서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수시 채용 제도 안정화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지속해왔던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국내 기업 최초로 채용 방식을 수시 채용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수시 채용으로 전면 전환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채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선, 고정적인 인력 채용 목표에 따른 경직된 채용이 불필요해지면서 필요한 신규인력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회사의 사업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시 채용으로의 전환은 소위 MZ세대로 인재 특성이 변화되고 있는 현재 노동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력과 삶을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을 가진 MZ세대가 구성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과거에 고용주 관점에서 정해진 기간에 일방적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배치했던 정기 공채보다 맞춤형 직무에 상시 지원하고 채용될 수 있는 수시 채용이 향후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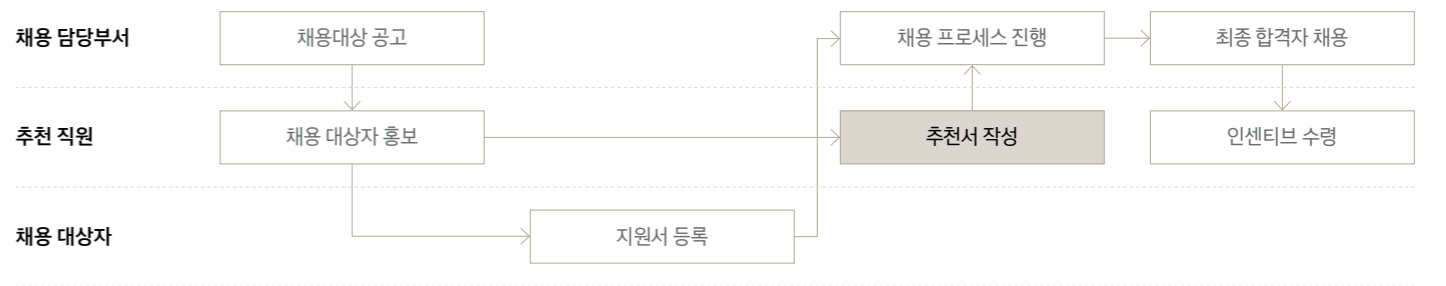
비대면 채용 활성화

COVID-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채용 프로세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한 서류 제출, 직무 적합성 검사, 인터뷰 등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비대면 채용 프로세스 운영 초기에 우려했던 바와 달리,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채용 프로세스의 시간적 단축을 통해 적시에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채용을 진행하는 직무 특성상 필수적으로 대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대면 방식의 채용 프로세스를 유지·확대할 것입니다.

직원추천 제도

R&D, 전동화, AAM,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의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력채용 시 직원의 추천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추천을 통해 경력직 지원자의 직무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경력채용자는 추천 직원과 사회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직원추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력채용 프로세스에 추천 직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경력채용이 되는 경우 추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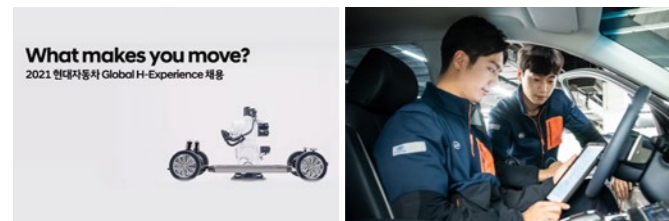
직원추천 채용 프로세스



미래 인재 육성 'H-Experience'

현대자동차는 사회 초년생에게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하여,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서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학생의 직무 경험 제공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진행 중인 H-Experience 인턴의 경우, 2020년 대비 규모를 2.5배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H-Experience 인턴을 통해 채용 전환된 청년 취업 준비생의 규모도 증가하는 등 고용 창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 시범 운영한 Global H-Experience 인턴을 2021년에도 지속해서 운영했으며, 보다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전략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ASEAN H-Experience 인턴십을 신규 진행하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취업준비생들과 더욱 상생할 수 있는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요 제휴 학교와의 산학 협력 및 인턴십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미래 인재 육성 발굴을 지속 강화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 서비스 하이테크 인턴(Hyundai Mechatronics Traineeship) 채용 본사 및 전국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자동차 기능 점검과 데이터 기반의 고난도 진단·정비 업무를 수행할 인턴사원을 선발하며, 업무기간 동안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서비스 하이테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정비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사고예방 등 고난도 정비 업무를 다루는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2021 Global H-Experience 2022 서비스 하이테크 인턴 채용

현대자동차 인재 분석

성과목표 이행 및 달성 점검 (Performance Measure)

임직원이 사전에 수립한 성과평가지표(KPIs)에 따라 업무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개별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개별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상급자 또는 동료로부터 성과평가에 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우를 우수인재로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량격차 파악 (Skill Gaps Identifying)

직급별 필요한 역량 범주를 설정하고, 개별 직원이 해당 역량 범주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더 직급의 경우 역량 범주를 '전략형', '육성형', '책임형', '추진형', '협업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역량 범주별 역량치(Ability)를 측정하여 우수 리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Employee Retention)

매년 임직원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여, 우수인재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인사·복지제도 상 개선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이탈이 예상되는 인재를 확인되는 경우, 이탈사유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직 네트워크 분석 (Network Analysis)

부서간 관계를 분석하여 협업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협업 빈도 및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부서간 관계를 파악하고, 고립되거나 소외된 부서를 선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간 협업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상황 분석 (Competitive Intelligence)

현대자동차가 직면하고 있는 경쟁상황과 신사업 진출 등으로 인해 예견되는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기술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시채용, 직원추천 채용, 채용 전환형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정의한 역량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우선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부 우수인재 식별 (Recruiting & Hiring)

현대자동차 채용에 관심을 가지거나, 채용 프로세스에 참여하였거나, 직원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인재의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우수인재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석·박사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차별화되고 다각화된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채용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현대자동차는 2019년부터 수시 채용으로 채용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대규모 채용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채용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대외용 채용 홈페이지와 내부 채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합성 있는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내/외부 고객에게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채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업 주도의 상시 채용으로 전환되면서 채용 과정에서 현업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채용 지원 전담 조직(Recruit Support Center)'을 대규모 사업장별로 배치하여 현업 부문에 채용 업무를 지원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제고하여 채용 프로세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채용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업 부문과 HR 부문 등 다양한 의사 결정자가 참여하는 선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재의 우수성과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복합적인 평가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인재의 장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 내부 감사를 진행하여 채용 업무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에게 공정한 채용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상시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채용 점검 체크리스트를 지속해서 개발하여 채용 부문에서 공정성을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정교화하고, 더불어 내부 감사의 실시 기간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명성을 지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략적 인력계획

기회	활용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인력 확보 및 상대적 경쟁력 분석을 위해 다양한 인재분석 방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인력의 핵심역량분석, 채용과정의 활용, 인력계획 Portfolio 및 채용 전략 등에 인재분석 내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부서 간 협업도 증진을 도모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을 통해 잠재적 조직 이탈 사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활동 수행 중

인재육성 방향

성장문화 조성

현대자동차는 비즈니스 성과와 미래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개인과 조직 역량 개발을 위하여, 임직원의 자발적인 학습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HR 프로세스와의 연계 및 성장 데이터 활용 강화를 통하여 구성원 관점에서 성장활동 활성화 요인을 제공하고, 이러한 성장문화가 개인을 넘어 조직 차원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구성원과 리더 대상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차원의 연결성 강화를 위하여 '전략 러닝랩'을 론칭하여, 구성원 간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 인프라 고도화

현대자동차는 구성원의 자발적 학습 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 플랫폼과 상시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상시 학습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를 학습 니즈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세대 러닝 플랫폼 신규 도입을 통하여 구성원의 학습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는 플랫폼을 통하여 구성원의 학습 경험을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고객 중심 리더 육성

현대자동차의 리더는 언제나 고객의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잠재 고객인 미래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생태계 구축에도 힘씁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기 위하여, 단순히 본인의 분야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더의 행동 변화가 조직과 구성원의 변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분	직무	리더십	합계
교육 운영시간	26,804	2,271	29,075

* 각 교육 과정의 총 운영시간 (참여 인원 수를 고려한 총 수강시간과 다름)

성과평가 제도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하여 개인 목표 양식을 활용한 MBO 성과 평가, 다면평가와 직원 간 순위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O 성과평가는 일반직, 연구직 직원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제외 인원도 업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목표 작성 및 피드백을 진행하므로 현대자동차의 모든 임직원이 MBO 기반 성과평가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임직원을 리더 대상(Leadership Surround View: 리더십 다면평가)과 구성원 대상(Peer Surround View: 동료 평가)으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2021년 인원 현황(임원/일반직/연구직) 기준 95.5%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임직원의 100%를 대상으로 동일 직급 내 직원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한 순위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직원의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상시 피드백(View-T)

'HR Lounge(HR 지원 시스템) - View-T' 페이지에서 연중 리더와 팀원이 자유롭게 업무·성장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언제든지 각자의 업무성과를 어필할 수 있고, 리더는 대면하지 않고도 수시로 업무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공유와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이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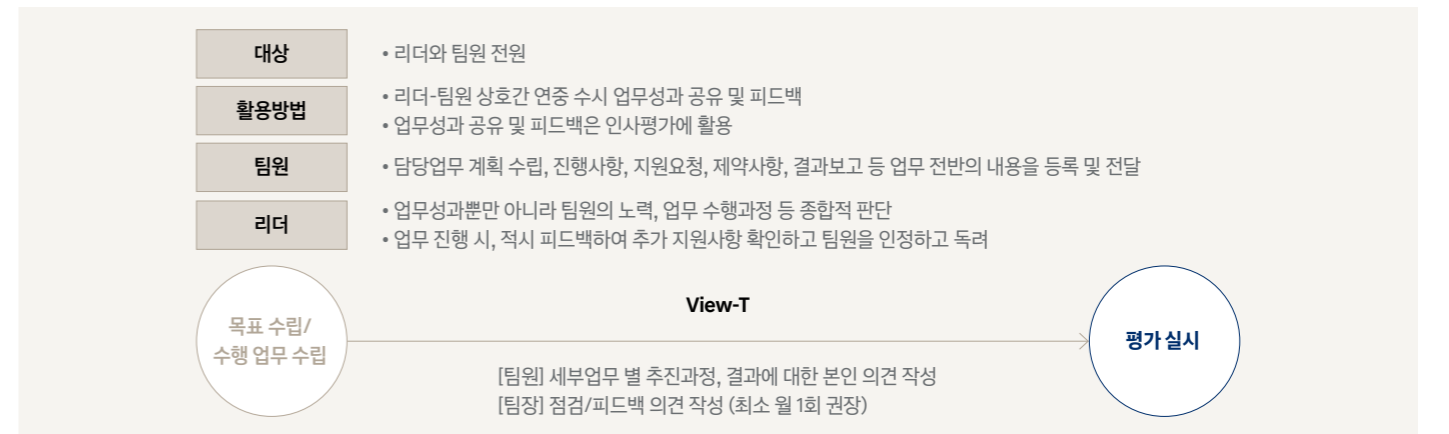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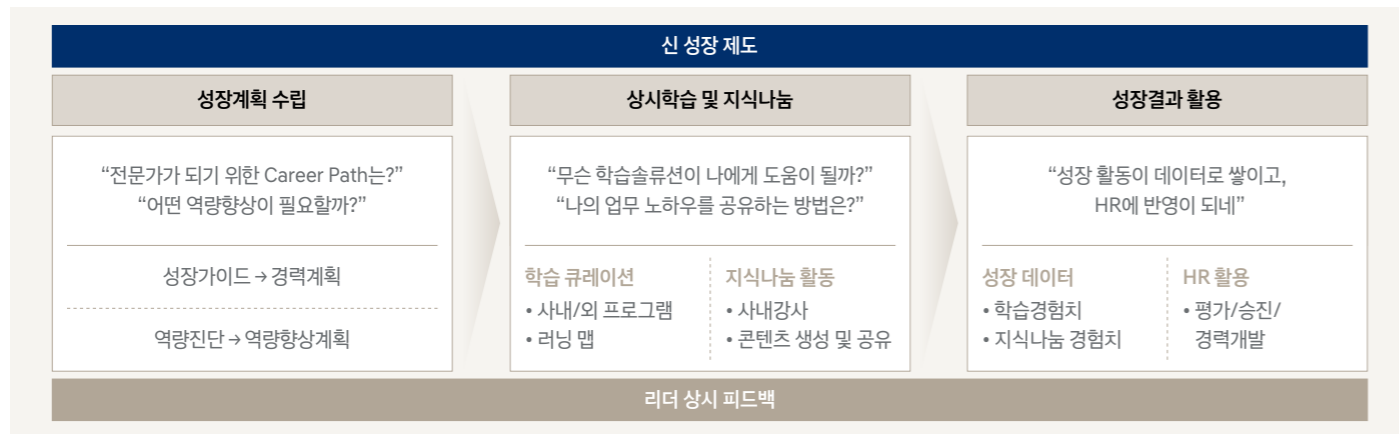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
현대자동차는 성별/국적과 관계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면평가, MBO, 상대평가, 상시평가의 다양한 임직원 평가제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보상과 연동되도록 성과보상 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개인의 성과향상이 보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성과와 연계된 보상제도

현대자동차는 성과와 연계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변동급여 항목이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경영성과에 따른 초과이익을 직원들에게 배분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

현대자동차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2020년 665,870주의 우리사주가 지급되었으며, 2021년에는 441,671주가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주식은 총 1,929,983주로 전체 주식 중 0.9% 지분율에 해당합니다.



전문역량 확보

R&D E-Conference (R&D 기술포럼 x 그룹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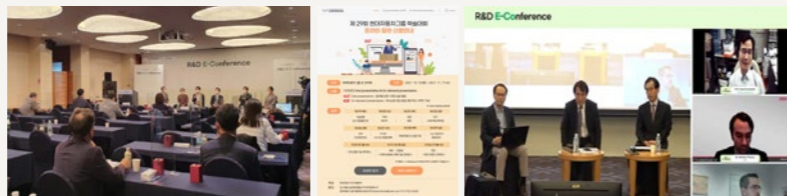
현대자동차는 '지식의 선순환(생산 → 축적 → 재생산)' Platform으로의 변화를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라는 목적 하에 1993년부터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연구성과를 논문이라는 지식공유 콘텐츠로 형식화하여 내재화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해외연구소를 포함한 전 그룹사로 참여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 10~11월에는 'R&D 기술포럼 x 그룹 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기술포럼과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업의 실무 연구개발 활동과 R&D 주요 기술분야의 향후 방향성을 연계한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연구직/일반직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했던 것과는 다르게, 리서치랩과 학술대회 분과가 주관으로 운영하여 현대자동차그룹 실무자가 논문을 발표할 뿐 아니라 컨퍼런스에 참관하여 각 기술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9개의 분과에서 총 299편의 논문이 최종발표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실시간 현장 발표와 영상 발표를 통해 총 3,057명의 참관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논문발표 이후 영상 발표된 99편의 논문은 5주 동안 임직원 교육 플랫폼 '러닝라운지'에 업로드되어 총 3,365명이 사후 참관을 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학술대회의 분야를 R&D 전략기반 핵심기술분야 위주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올해 성황리에 진행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운영 프로세스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학술대회 주요성과 및 계획

- 2021년 10월~11월까지 총 19개 기술분야의 학술대회 진행, 총 3,057명 참가
- 초록 총 1,368편 제출, 299편의 논문 최종 발표
- 2022년 이후에는 핵심기술분야 위주로 확대/개편 검토



R&D 프로젝트 기반 공동연구 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는 R&D 미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전문기관과 2012년부터 '파견형 공동연구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20명의 책임급 연구원이 공동연구에 참가하며, 연구결과를 현대자동차에 복귀한 이후 양산차종 및 선행기술에 적용하여 핵심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내재화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식공유 전파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R&D 프로젝트 기반 공동연구 성과

구분	건수(회수)
신기술 개발	13
현업문제 해결	9
특허/논문	19
연구성과 전파	17

카마스터 양성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기업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카마스터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교육은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판매 관련 교육이며 임직원의 99.7%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전문성 제고(전동화, 고급차), 상품 기본 지식 함양(신차 출시 상품 교육 등), 고객 케어 강화(CS, CR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교육을 통해 차량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익히고, 고객 응대 서비스를 한단계 더 높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는 오랜 역사와 공신력을 인정받은 KCSI(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에서 지난해 평가 점수를 갱신하며 승용자동차 부문에서 28년 동안 연속으로 소비자만족도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 내재화 교육

최근 COVID-19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도입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비즈니스 흐름의 선두에 서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내재화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37,055시간 동안 구성원의 담당 직무 및 리더십 정규 교육 이외에도 인권 및 안전/환경/품질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임직원의 학습경험을 확장시켜감으로써 ESG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미래 변화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 지속가능성 교육 운영시간

구분	직무	리더십	지속가능성				소계	합계
			인권	안전	환경	품질		
교육 운영시간	26,804	2,271	49	4,676	1,250	2,005	7,980	37,055

* 각 교육 과정의 총 운영시간 (참여 인원 수를 고려한 총 수강시간과 다름)

지속가능성 교육 분야

 <p>인권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p>	 <p>안전 공장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교육 등</p>	 <p>환경 환경 관련 직무교육, 친환경차, 연료전지 교육 등</p>	 <p>품질 품질 관련 직무교육, 현장 품질관리 역량 향상 교육</p>
--	--	--	---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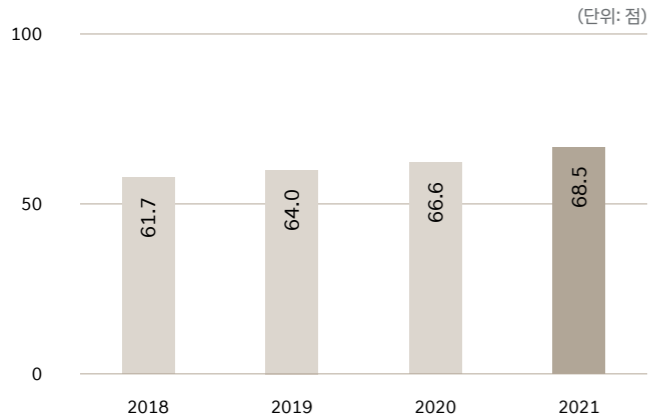
현대자동차는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일하는 모습'인 Bold Moves(과감한 도전), Positive Energy(긍정 에너지), Inner Qualities(완성도 추구)를 조직문화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직원과 리더의 '일하는 방식, 콕(CoC)'을 만들어 전사적으로 내재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별 조직문화 변화혁신담당자를 별도 선별하여 리더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에도 임직원들의 업무 편의와 복리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재택근무, 거점 오피스 운영, 휴가 제도 등 편안한 업무 환경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적극적인 소통과 인재 존중 마인드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분위기에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조직문화 진단

직원의 높은 참여도는 기업의 성과와 인재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임직원 대상으로 조직문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9월 Biz/People/Work/리더십/제도/인프라/조직효과성 등 총 7개 영역 7개 문항으로 구성된 진단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일반직/연구직/법무직 등 전체 임직원의 72.9%가 참여하였으며,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조직문화 진단 결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Next Big Idea

현대자동차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 반기 Next Big Idea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특히, 2021년에는 탄소배출 저감, 전기차 활성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기술 아이디어들이 돋보였습니다. 하반기 공모전에서는 역대 최다인 2,610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으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19건의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구현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2021년부터는 상시 운영되는 아이디어 플랫폼을 개발하여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타운홀 미팅', 익명 소통채널 '현대나무숲' 등 Bottom-up 방식의 활동으로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Next Big Idea 공모전 포스터

타운홀 미팅

조직문화 변화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일하는 방식, 콕(CoC)'을 중심으로 업무몰입을 위한 다양한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내재화를 위한 활동부터 일의 의미와 자발적 변화를 위한 'Inner Qualities(업무/제품 품질 제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와 조직별 변화와 혁신 담당을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의 기반을 다지는 'IT 인프라 구축'과 '거점 오피스(H-Work Station) 운영'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변화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문화 캠페인을 통해 수평적인 문화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증진시키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일하는 방식 콕(CoC, Code of Conduct)' 내재화

현대자동차는 'Kill the Company'를 타이틀로 하여 '회사를 죽이는(Kill) 방법을 거꾸로 전환하여 살리는(Save) 일하는 방식'에 대해 전 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 '일하는 방식 콕(CoC)'이 개발되었고, 긍정에너지, 책임감/집요함, 새로운 도전과 시도 등 이를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진행 중입니다. 대표이사부터 신입사원까지 여러 임직원들의 생각과 실천에 대한 다짐이 담긴 영상부터 실제 직원들의 참여와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점의 실천

현대자동차는 구성원이 고객의 관점에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함으로써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완성도를 추구하고, 보람을 느끼며,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1년 총 7번의 신차 품질 선형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부문의 임직원들이 테스트 드라이버로서 양산을 앞둔 신차의 최종 품질 점검에 함께하면서, 작은 기능의 디테일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다시 보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원과 고객이 함께 차량을 직접 운행하며 상품성과 드라이빙 감성을 함께 이야기하는 인사이트 트립을 진행함으로써 제품 개발 담당자가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술 개발에 대한 영감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행하였습니다.

본부별 변화혁신 가속화

현대자동차는 리더를 통한 Top-down 방식과 구성원 참여를 통한 Bottom-up 방식, 두 가지 방향에서 본부별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영층 회의에서 기업문화세션을 통해 Top 리더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실제 행동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별 변화혁신담당자를 통해 조직문화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구성원들의 VoE에 기반한 솔루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근무환경 조성

현대자동차는 유연 근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오피스 좌열좌석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개인 업무 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별도의 협업 공간 또한 확충하여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2020년에는 양재 본사의 스마트 오피스를 확대하던 중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었고, 2021년에는 서울/경기권에 거점오피스 'H-Work Station' 8개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동시에 개인 전산장비를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화상회의와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룹웨어 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재택근무 활성화에 걸맞은 스마트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제도 도입

현대자동차는 COVID-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 거점오피스 근무와 같은 원격근무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장소가 아닌 일에 몰입하여 자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택근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제도 도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임직원 VoE를 바탕으로 재택근무 매너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화상회의 IT Tool 사용을 활성화하여 비대면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변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일하는 방식, 콕(CoC)

임직원 다양성 증진

글로벌 기업으로서 임직원 다양성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등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구축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온라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는 임직원의 글로벌 마인드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 HR팀은 Global Exchange Program(인재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사업 역량을 제고합니다.

다양성 프로그램

신임 해외법인장 온보딩 과정 (이문화 리더십 워크샵)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인장 역할 논의
주재원 부임 전 과정	각 문화권 이해, GlobeSmart 진단을 통해 부임 국가와 부임자의 성향 차이 파악
팀장 기본과정	구성원 개인 강점 발현 및 다양성 이해에 기반한 인재육성 문화 조성
Cross Cultural Seminar	외국인 임원 대상 이문화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팀 다이내믹스 워크샵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성이 팀 내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구성원 다양성 포용 계획 수립

직원 리소스 그룹 (Employee Resource Group)

Women @ Hyundai	여성 임직원,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성 임직원의 관점에서 현대의 브랜드 인지도, 임직원의 커리어 개발 및 근속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고민합니다.	여성 임직원 ERG
Hyundai @ Soul	임직원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 내에서 현대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방법을 논의합니다. 현대 경영진이 문화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성 차원에서 조언을 합니다.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임직원 ERG
#BecauseAsian	아시아 문화의 특성과 관점을 이용하여 현대를 더 성공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합니다. 임직원의 재능, 기술 및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합니다. 현대의 기업 홍보와 지역사회 행사를 지원합니다	아시아계 임직원 ERG
Amigos Unidos	라틴계 커뮤니티의 문화적 지능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경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라틴계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라틴계 임직원의 관점에서 현대 경영진이 나아가갈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히스패닉/라틴계 임직원 ERG
Young Leaders	밀레니얼 세대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현대자동차의 우수함과 성공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해결책, 개선점을 고민합니다. 동시에 소속 임직원 개인의 커리어 개발과 자기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임직원 ERG
Equality	성소수자(LGBTQ) 임직원에게 교육, 경력 개발, 네트워킹 및 직장 협업 기회를 제공하며,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LGBTQ 커뮤니티 내에서 현대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LGBTQ+ 임직원 ERG
Hyundai CARES	장애인의 직장생활을 개선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선천적, 후천적 장애가 있는 임직원, 노화로 인한 장애를 가진 중장년 임직원,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를 가진 임직원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임직원 ERG
Stars & Stripes	현대자동차 직원, 배우자, 가족 및 미군 참전용사의 지지자들이 모일 수 있는 포럼을 관리합니다. 공통된 관심사, 정체성 등의 주제로 대화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보훈대상자 ERG

임직원 다양성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다양성 및 포용성과 관련한 공통의 관심사, 다양성 배경을 지닌 임직원들이 상호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직원 리소스 그룹(Employee Resource Group)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더 나은 팀워크를 형성하고, 다양성 문화를 기반으로 한 멘토링, 문화교류, 지역사회 참여 등 외부 연계활동을 통해 현대자동차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정책

임직원 다양성 기본원칙

임직원
현대자동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문화적 배경, 연령, 개인의 성 정체성, 정치적·종교적 신념의 차이 또는 사회적 신분의 취약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고용, 승진, 교육, 임금 및 복지 등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품 및 서비스
현대자동차는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생산, 판매 과정에 있어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마케팅, 브랜딩, 기타 대내외 홍보 시 다양성 및 포용성의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공급망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의 다양성 및 포용성 현안을 모니터링하여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도하며, 모든 공급망과 개인이 공정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
현대자동차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상관속, 재산권 등 기타 권의 등을 침해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상생 노사문화

국내 노동조합 커뮤니케이션

현대자동차는 헌법과 관련 법규에 의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노사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충 해결과 관련된 협의체를 성실히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 또한 회사 경쟁력 향상 등 노사가 함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상정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4차 산업혁명, 전동화 및 미래 신사업 전환기 속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변화대응TFT 및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생산성 등 국내공장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변화와 노사 간 갈등에 대비하여 2018년에 5명의 전문가로 1기 고용안정위원회 자문위를 구성했습니다. 자문위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세미나,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7명의 자문위원을 2기 자문위로 위촉하였으며, 2021년에는 2기 위원들이 연임하여 3기 자문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고용 문제를 연구하며 노사 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글로벌 노동조합 커뮤니케이션

현대자동차 중국법인에는 공회, 인도-체코·브라질 법인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법인은 현지 법규를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수행하며, 상호 간 합리적인 안건 제시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임직원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미국-러시아튀르키예 법인에는 노동조합이 없지만, 이와 관계없이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원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는 전 세계 현대자동차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활동을 시행합니다. 각 해외법인은 직원-경영진 간의 정기적 간담회, 고충상담실, 현장 순회 등을 통해 소통하며 직원들의 고충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COVID-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직원과의 대면 소통이 한정됨에 따라 각 해외법인은 모바일 앱 등의 비대면 툴을 활용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제도

복리후생 제도 운영 방향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지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출산·육아를 위한 유급 휴가 운영 등 일과 삶의 균형

복리후생 프로그램

시간제 근무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월 이내로 정해진 총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직/연구직/법무직/생산직군에 대해 적용 직원 자율에 따라 일일 의무근무시간(10시~4시) 외에는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월 소정근무시간 충족 조건)
재택근무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VID-19 확산에 따라 임직원 안전을 위해 사업장별 자율적 재택근무 시행 2022년부터 감염병 확산 예방 목적을 넘어, 임직원의 유연한 근무형태로서 재택근무 제도 정착 (재택근무, 거점오피스 근무 등 선택적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근무 제도 시행)
육아시간(수유시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한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후 1년 동안 1일 12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제공
사내 어린이집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혼 여직원 및 한부모 자녀 등을 위한 사내 어린이집 지원 본사, 울산/아산/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등 총 5곳 운영
주중출산휴가지원 (아이행복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배우자 임신 및 출산 시 임신 6개월~출산 12개월 내에 회사 지정 호텔 숙박 제공 (최대 2박)
육아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직원 모두에게 자녀 한명 당 최대 2년까지 제공 (최소 1년간 유급 육아휴직 제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합산해 최대 2년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제외) 육아휴직 기간에도 경영 성과금 및 복지포인트, 우리 사주 등 혜택 제공
출산 전후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 간의 보호 휴가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직원의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6주 이상) 1일 근로시간 중 2시간 단축 제공 (시업 후 2시간, 종업 전 2시간, 또는 시업 후 1시간 + 종업 전 1시간 중 선택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자녀 1명당 최대 2년 사용 가능 (첫해는 2회 분할, 두 번째 해는 1회 분할 가능) 시업 후 2시간 또는 4시간, 종업 전 2시간 또는 4시간, 시업 후 2시간+종업 전 2시간 사용 가능
유산, 사산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중 유산, 사산 등 임직원 건강을 위한 대상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 부여
배우자 출산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출산한 남직원 대상 출산 90일 이내 최대 10일 지원
보건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직원대상 월 1일 보건휴가 지원
가족 돌봄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나 자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0일 지원

퇴직연금 제도

현대자동차는 정년퇴직 대상 직원의 퇴직 후 삶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 교육을 시행하여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준비금 사외 적립을 통해 퇴직연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말	2020년 말
보험상품	5,840,100	5,436,225
기타	3,235	3,701
계	5,843,335	5,439,926

퇴직자 미래설계

현대자동차는 정년퇴직 대상 직원의 퇴직 이후 노후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직급과 직군에 따라 차별화된 미래설계 과정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총 2,05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미래설계 지원 프로그램 성과

대상	매니저 이하 (조합원)		간부사원	
	미래설계 56~60	상담	미래설계 기본과정	미래설계 전문교육
과정명	만 56~60세	만 56~60세	만 59세	만 60세
연령	1,152명	173명	396명	335명
수료인원 (21년)	강의 및 체험 등	상담	강의/상담 (비대면)	강의/상담 (비대면)
형태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인식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기 점검 미래설계 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대1 맞춤형 경력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경력/흥미 탐색 재무진단, 재무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희망경로에 따라 경력 분석 및 전직 실행계획 수립
내용				

산업 안전보건

현대자동차는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지속가치를 보장’한다는 당사 안전보건경영방침 실현을 위해 안전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COVID-19 상황 대처를 위해 사업장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COVID-19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573% 증액한 투자예산을 바탕으로 안전/소방/환경/보건 분야의 노후시설 및 방호장치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층의 안전리더십 강화를 통해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공고히 하고 상·하반기 자체 종합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리더십 강화

안전보건경영 체계 안전보건 경영 정책

2022년 1월, 현대자동차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이동석 부사장)를 선임하면서 안전관리를 위한 총괄 거버넌스 체계를 신설하였습니다. CSO 신설과 함께 안전관리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승격하고, 안전관련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 단위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우선순위와 그 사항들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직원, 관리자, 사업 단위 간 보건 관련 이슈와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분기에 1회 산업 안전 보건 담당 부서와 경영진·이사회 간의 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목표 진행도를 평가합니다. 그 외, 산업 안전보건 전문가에 의한 내부 점검 및 업무 관련 부상, 질병, 사고를 조사하는 절차를 수립하며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진뿐 아니라 라인 관리자 등 안전 관련 책임이 있는 구성원에게는 산업 안전보건 목표를 통해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등) 인증 사업장 비율



사업장 안전보건 성과

- 현대자동차 국내 사업장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 (2017~2020년)
- COVID-19 선제적 대응으로 직원 건강권 확보 및 생산 손실 최소화
 - 코로나 종합상황실 운영, 생산라인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출입/방문자 관리 고도화
 - 감염 의심 시 선제적 격리·진단검사,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활동 진행
 - 열화상 카메라(출입문/식당) 및 사내 셔틀버스내 CCTV 운영 등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사업장 내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작업유형을 분석하고 적합한 안전관리 대응방안 및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 산업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생산공장의 중대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장비 끼임과 차량 충돌 사고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일상 작업 중 사고보다 주말 등 휴무 기간에 이뤄지는 비정형 공사 작업 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NFC 기술 기반 모바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관리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는 CCTV 설치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누락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조작 시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체감지 센서 및 경보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휴무기간 시 이뤄지는 비정형 공사작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공사설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관리 규정서를 개발 및 운영하여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협력사 중대재해 예방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지원 및 휴무기간 공사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협력사 안전관리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협력사의 재해예방 역량을 사전에 평가하여 적격수급인을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경영 의지 선포식을 진행하고 중대재해 발생 위험 공정에 경영진이 현장 점검을 하며 협력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 발생 협력사를 대상으로 위험요인 개선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안전진단 전문 위원이 방문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 선행지표 관리

사고총량 저감을 위해 기존의 재해율 중심의 지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안전 관리 선행지표 H-LWC(Hyundai-Lost Workday Case)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시행 초기인 2019년에 대비하여 사고총량이 9% 저감되었습니다. 또한 선행지표는 축적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측하는 분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3대 사고(부딪힘/떨어짐/끼임)를 집중 분석하고 맞춤형 관리활동을 추진하여 총량적 사고감소 도모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중상해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위험까지 관리하였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

현대자동차는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자체 개발한 H-SAT(Hyundai-Safety Assessment Tool) 평가제도를 2019년부터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매년 강화되는 안전/보건/소방/환경 부문의 법규, 대외동향에 따른 신규업무 등을 반영하여 지속 개정을 추진하면서 본 제도의 실효성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본 평가결과는 국내사업장의 KPI와 연동하여 현장 안전관리 작동성을 높이도록 구조화함으로써 경영층의 안전리더십과 현장 사고예방 효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사고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해저감목표 전년 대비 5% 이상 강화’, ‘신규 휴업사고 지표 현실화’, ‘리더 안전보건 책임역할 평가’ 등 안전관리 평가제도 및 KPI 관리방향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제도 구성

평가 영역	관리체계 평가 항목	사업장 현장점검 항목
안전	경영층 안전 회의 등	로봇 방호장치 등
보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등	국소배기설비 등
소방	비상대비 대응 체계 등	화재 취약지 등
환경	환경설비 인허가 등	대기방지시설 등

비상대응 종합훈련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보유 및 유지하기 위해 당사는 각 단위 공장별로 상·하반기 연 2회 사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COVID-19로 인해 훈련에 제약이 있었던 부분은 비대면 교육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상황대처 능력을 유지토록 대응하여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COVID-19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비상대응 종합훈련을 재개하여 화재폭발, 지진발생, 환경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임직원들이 신속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훈련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훈련의 수준을 지속 향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안전보건 문화 확산

작업장 안전디자인 적용

작업자의 안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 안전디자인 기준을 수립하여 단계별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를 시점으로 현장통로 안전디자인 기준을 시범적용한 결과 시인성이 우수하여 안전사고 저감에 우수한 효과성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공장 개선공사 발생 시 수평적용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물류 하역장에 안전디자인을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AGV(자동이송장치), 자재 하치용 테이블리프트 등 고위험 작업공정 주변 접근금지 디자인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된 안전디자인 기준은 신규공장 신설 시 의무 적용하여 사고 저감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OVID-19 확산 방지

현대자동차는 COVID-19 비상 대응 종합 상황실을 COVID-19 초창기부터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매일 국내외의 감염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을 통해 사업장 확진자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검사, 접촉자 격리, 유증상자 파악 등의 긴급 방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11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일일 방역, 손 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 열화상 카메라 운영으로 사업장 보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거리두기나 재택근무 방침 등 비즈니스 활동 지원 중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임직원 방역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적용 근골격계 질환 예방

현대자동차는 현장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자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인 첵스(CEX)는 근로자가 앉는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무릎관절을 보조하여 근로자가 앉는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슈트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인 벅스(VEX)는 멀티링크 근력보상장치를 갖추어 장시간 위를 보고 팔을 들어 작업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합니다. 2020년 4분기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10대를 국내 7개 공장 36개 공정에서 104명을 대상으로 현장테스트 하였으며, 테스트한 결과를 통해 신체 다양성 반영, 장비조작 난이도 하향, 장비 경량화 등의 문제점을 발굴하였고, 2021년에는 추가 테스트를 진행하여 착용 시 문제점에 대한 기술을 보완하고자 현대로템과 협업하여 신속히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장비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실시 (미래 안전교육 콘텐츠)

현대자동차는 전 임직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안전보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미래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동영상교육은 총 36편(심화교육 6편, 마이크로 러닝 30편)으로 안전수칙 및 사고예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VR 안전교육 콘텐츠 및 체험시설을 제작하여 직접 체험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운영 현황

	구분	교육 대상	교육 시간
법정 안전교육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자 (약 1,200명/년)	8시간 이상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 작업자 (39종)	16시간 이상
	전 근로자	현장근로자 (약 2.8만명)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휘/감독하는 현장 관리자 (약 1,300명)
역량/특성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이 변경된 일용직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특성화 교육	보전/수송부서, 간부사원 등 (약 3,350명)	일 8시간 이내
	직무역량 교육	안전관리자, 안전추진자 등 (약 400명)	최대 2박3일
심리안전상담	심리상담 및 교육	임직원, 직원가족, 협력업체 등 (약 1,470명)	1회 약 1시간

* 울산공장 기준

사업장별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 활동

국내공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휴무일 공사에 안전 감독을 강화하여 2021년 휴무일 공사 무사고를 달성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총 3,646건의 설비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양산에 따른 화재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친환경차 관련 화재안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생산공장뿐 아니라, 연구소, 정비소, 친환경차 관련 시설 등을 점검하며 총 101가지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은 관리적 개선, 물리적 개선, 프로세스 개선으로 분류하였고, 양산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업보건안전과 관련된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안전교육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관리감독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중대재해 예방 특별교육 동영상 제작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COVID-19 상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모바일 안전교육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VR 체험 학습 콘텐츠와 VR 체험 학습장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건 관리를 위해 공장내 흡연 부스 및 흡연벨 설치, 사내 금연 클리닉·사의 금연 캠프 운영, 흡연 장소 점검제도, 금연 클린 공장 홍보 등 2016년부터 진행해 온 금연 클린 공장 활동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2회 전 작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 요인에 대한 현장 작업환경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조사 절차 및 단계별 행동요령

단계	진술확보	공정확인	사건촬영	원인분석	대책수립
행동	최초 목격자의 진술 확보	공정을 확인하고, 사고발생 원인 등 청취	전체 공정 및 사고 재연사진 촬영	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	여러 대책 수립 후 가장 이상적인 대책을 적용함

* 사고조사 행동요령: 사고 발생 시 상기 단계에 따라 확인하며, 누락시키거나 서두르지 않도록 함

** '6하 원칙'을 기초로 한 사고조사 진행하여 정보 누락을 방지하고, 큰 원인부터 작은 원인(Top Down 방식)으로 확인함

울산공장

울산공장은 법정 안전교육을 초과한 역량/특성 교육과 심리안전상담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보전 및 교통 안전 등 5개 과정의 특성화 교육을 보전/수송 부서와 간부사원 약 3,350명을 대상으로 1일 8시간 이내의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 추진자 등 약 400명을 대상으로 에센스/어드밴스 교육 등 5개과정의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산공장

아산공장은 2021년 9월 협력사 30개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와 산업재해 없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협력사의 안전진단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12월에 부품 제조업 산업재해 예방 세미나를 개최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전주공장

전주공장은 2021년 상반기 해빙기 대비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빙기 대비 발생할 수 있는 외벽이나 방유벽의 균열 등 현장 위험요소를 점검하였고, 배수로 청소나 도로 아스팔트 보수 등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인권경영 확산

현대자동차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의 인권 및 노동 국제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서 인권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임직원뿐 아니라 사업 관련자나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위해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인권 헌장을 제정하였고,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권 리스크 평가와 인권경영 이행 현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도입

인권헌장  현대자동차 인권헌장
현대자동차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인권헌장을 2021년 6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자격, 차별의 방지 존중에 대한 약속을 담았습니다. 인권헌장은 현대자동차의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Joint Venture)의 임직원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권헌장의 1조와 2조를 통해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확인된 차별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재원 부임 전 과정이나 팀장 기본과정, 신입 해외법인장 온보딩 과정 등의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Cross Cultural Seminar 및 팀 다이내믹스 워크숍으로 임직원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확산
인권경영을 현대자동차의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권경영에 대한 교육과 확산방법의 다양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법적 의무인 성희롱 예방 교육 이외의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내부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을 전달하고 있으며, 직장 내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을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권헌장 및 실행계획, 인권 리스크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현대자동차 내에서뿐만 아니라,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 기타 거래관계에 있는 조직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정책을 업로드하여 외부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임직원의 경우 인트라넷(HR라운지)을 통해 인권정책 열람과 관련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  현대자동차 차별 및 괴롭힘 금지정책
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영위하면서 발생가능한 차별 및 괴롭힘과 관련한 이슈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사의 모든 임직원이 차별없는 동등한 대우를 받기위해 2022년 6월 '현대자동차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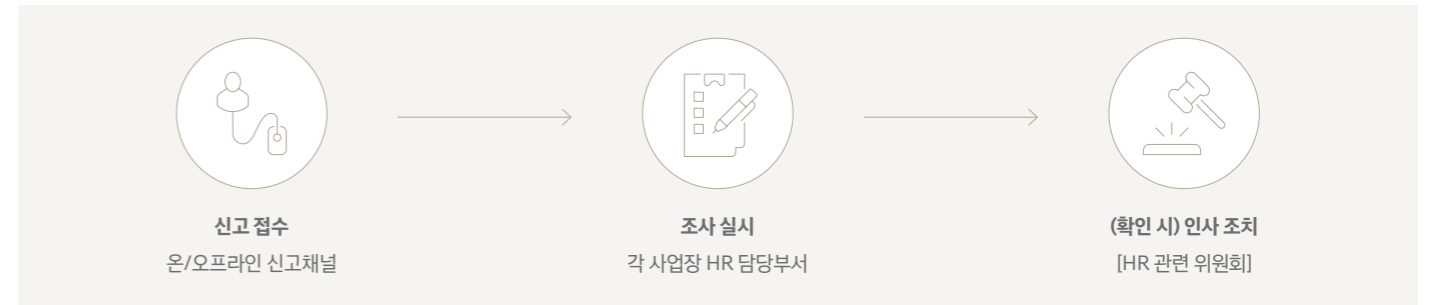
차별 및 괴롭힘 리스크 관리원칙
(신고처리) 현대자동차는 차별 및 괴롭힘과 관련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신고 접수 채널을 구축하였으며, 신고접수부터 조사, 인사 조치 시까지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 및 확산) 현대자동차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별 및 괴롭힘 금지 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과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 문화확산을 지향합니다. 해당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상호존중 문화 향상과 관련 사건 발생 시 사후조치 등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무관용 원칙) 차별 및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시정 및 인사 조치)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괴롭힘 또는 기타 불법적인 침해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시정 조치 및 인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차별 및 괴롭힘 관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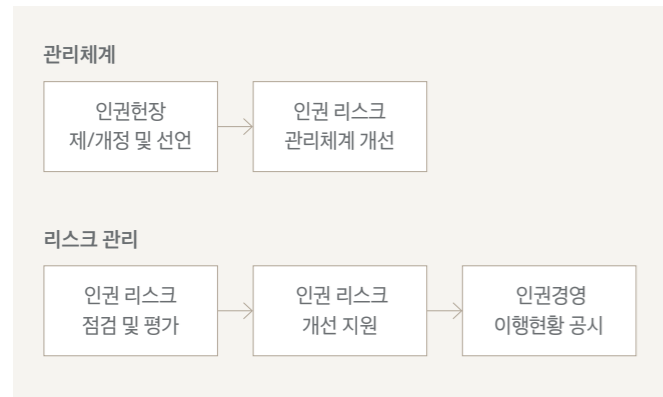
차별 및 괴롭힘 리스크 완화 조치
현대자동차는 차별 및 괴롭힘 관련한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 중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채널을 통해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고, 차별 및 괴롭힘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체계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 선정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 현대자동차 임직원 및 협력사/합작회사를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인권 침해 요소들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인권 리스크 평가(진단 및 실사)

부정적 인권 영향을 사전 식별 및 예방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당사 사업운영, 공급망 활동, 신규 사업관계(합작회사) 등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진단 과정을 통해 강제노동, 아동노동,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자격, 차별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을 임직원, 여성, 아동, 토착민, 이주노동자, 지역사회로 설정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사업장에 이어 북미/중남미/유럽/인도/중국지역의 해외사업장에도 인권리스크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16개 해외지사 중 2개 사업장에 인권헌장 인지도 부족 등 잠재적인 리스크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임직원 인권보호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대상으로 현대차그룹 인권헌장을 배포, 홍보하고자 계획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 및 협력사 등에서 부정적 인권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잠재적 인권 리스크 발굴, 인권 리스크 평가대상 확대, 인권 리스크 진단 및 실사 프로세스 정교화 등 같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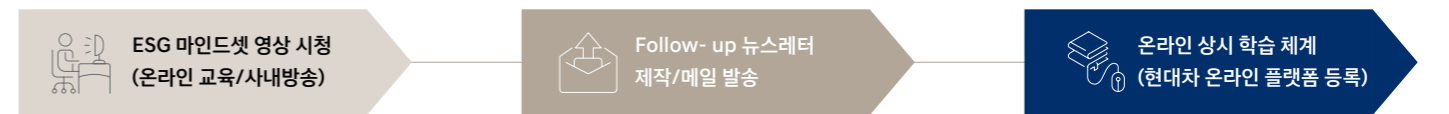
인권 리스크 평가결과 및 개선조치

리스크 점검 결과 '잠재적 위험'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임직원 대상 인권경영 관련 인식 개선 활동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 이행 활동들을 수행했습니다. 내부 직원 대상으로 인트라넷을 통해 인권헌장을 배포하고 외국인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영문으로 제공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ESG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고 인권경영의 정의, 중요성 및 당사 인권헌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대자동차 국내사업장 임직원 대상 ESG 온라인 교육(국/영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과정 ESG 마인드셋 교육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 중요성 및 트렌드와 함께 모듈별(윤리, 인권, 안전, 환경) 콘텐츠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가 인터뷰, 실제 사례,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과정



인권 리스크 사전진단 및 주요위험

인권 이슈	인권 리스크 평가 대상					
	임직원	여성	아동	이주/계약노동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근로환경 (감정노동, 차별, 결사의 자유 등)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잠재적 위험	낮은 위험
근로조건 (시간, 급여, 아동/강제노동 등)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잠재적 위험	낮은 위험
안전보건 (사업장 안전시설, 보호구 착용 등)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잠재적 위험	낮은 위험
사업영향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사회적 영향)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위험	잠재적 위험	낮은 위험
분쟁광물 (원자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낮은 위험	잠재적 위험	잠재적 위험	낮은 위험	잠재적 위험	낮은 위험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단위	2021	
자사 사업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비율	90.4%
	리스크 있는 사업장 비율	8.3%
	완화 개선/조치 적용 비율	100%
1차 협력사	인권영향평가 실시 비율	20%
	리스크 있는 사업장 비율	5%
	완화 개선/조치 적용 비율	100%

인권 리스크 주요 완화 조치 사항

ESG 교육	활동: 임직원 대상 ESG 교육프로그램 개발
	주요내용 - ESG 주요 영역별(환경/안전/윤리/인권) 교육 - 일반/연구/법무직 등 2.2만 명 (이수율 90.1%)
급여명세서 영문화	활동: 외국인 직원을 위한 급여명세서 영문화
	주요내용 - 지급/사용 수당, 임금유형 정리 등 영문화 - 급여조회 시스템 내 해당 내역 반영
인권헌장 개정 및 배포	활동: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인권 헌장 고도화
	주요내용 - 2021.06 인권헌장 개정 - 인권 리스크 진단 및 관리체계 등 고도화

협력사

동반성장

현대자동차의 품질 경쟁력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데에는 협력사의 부품 기술력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협력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나가기 위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현대자동차는 품질 및 기술 학교, 자금지원 프로그램,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 함께하는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반성장 및 경영안정 지원

동반성장 문화 확산

공정거래 협약 체결

현대자동차는 동반성장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매년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2008년 1기 협약체결 이래로 2021년에도 협력사와 13기 협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가격인상 관련 조정, 자금지원 프로그램, 하도급 4대 실천사항 운영, 2·3차 협력사 지원 강화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투명구매 실천센터 운영

협력사에게 윤리적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당사와 협력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동반성장 홈페이지 내에 투명구매 실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을 마련하여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3차 협력사 소리함'도 운영하여 공급망 전반의 공정한 거래 관행 구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동반성장 포상

2009년부터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이나 내구품질 개선 등 동반성장 실적을 심사하고 포상하여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R&D 협력사 테크 데이'를 개최하여 R&D 우수 협력사를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포상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02년 기아, 현대모비스와 협력하여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매년 이 재단에 약 60억 원을 출자하여 협력사의 품질, 기술, 경영의 전반적인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부품 품질 개선, 기술향상, 관리능력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품질/기술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품질·기술 봉사단 및 협력업체 지원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반진출 지원

현대자동차는 해외 생산물량 확대를 통해 직접적 관계를 맺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의 수출 증대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글로벌 진출이 협력사에 보다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여, 국내에서의 동행을 해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49사(1차 협력사 349사, 2차 협력사 400사)와 해외 동반진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품질보증으로 협력사에게 타 메이커 수주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협력사의 우수한 인재가 해외지역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 4대 실천사항

-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 실천사항
- 하도급 내부심의 위원회 운용 실천사항
-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 운영

- 투명구매실천센터 홈페이지 내 제도개선 건의, 투명·윤리 위반행위 등과 관련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 운영



경영안정 금융 지원

현대자동차는 기아와 함께 명절 기간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며, 2·3차 협력사에도 납품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 평가 항목에 납품대금 지원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반성장 협력대출, 미래성장상생펀드, 미래성장동반펀드, 상생금형설비펀드, 2·3차 협력사 전용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협력사의 경영안정 기반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중소·중견 협력사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자금을 예치하여 협력사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판, 알루미늄, 귀금속 등의 원자재 가격변동을 단가에 반영하여, 협력사가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을 덜고 양질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규모 (억 원)	예치금 (억 원)
코로나 극복 동반성장 협력대출	2,380	680
미래성장상생펀드	935	374
미래성장동반펀드	1,500	1,000
상생금형설비펀드	750	500
2·3차 협력사 전용 대출펀드	723	723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 현황



협력사 역량강화 지원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및 설비투자를 통해 협력사 사업장의 공정데이터 전산화, 리드타임 감소, 불량률 감소, 폐각비용 저감, 납기준수를 제고, 매출액 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ICT(정보통신)와 연결하는 첨단지능형 공장 구축을 위해 2015년 8월부터 2021년까지 그룹차원에서 총 240억 원을 출연하여, 1,100여개의 중소기업 협력사의 사업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국내·외 자동차부품 산업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를 매칭시켜주는 협력사 수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 전시회 부스 임차를 비롯해 해외 바이어와의 1대 1매칭, 상담장 운영 등의 비용을 지원하며, 해외 전시회는 참가비를 포함, 항공 및 숙박 등의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고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3차 협력사 포함 287개 협력사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 전용 온라인 상시 채용지원 시스템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협력사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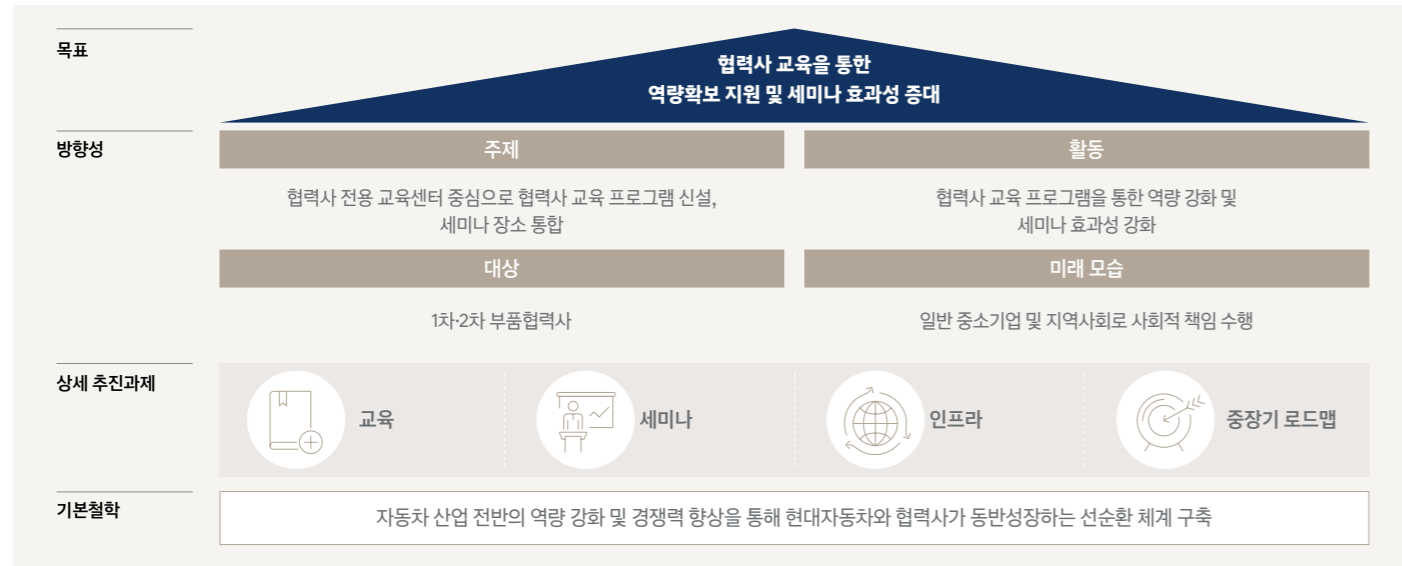
협력사 경쟁력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상생협력센터(GPC) 활용 협력사 교육 강화

2020년 6월 개원한 글로벌상생협력센터(GPC)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사가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향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상생협력센터는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사에서 자체 교육 필요시 교육 시설 및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는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미래 경쟁력, 리더십, 직무기본교육, 글로벌 역량, 산업 전문가 육성 등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18개 트랙과 45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PC 연계 현대자동차 협력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협력사 대상 교육 성과 (2021년)

구분	2021 교육 참여자 수 (명)	비고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품질기술학교	2,604	맞춤 교육 과정 22개 운영
	일반교육 등	7,033	일반 교육, 현장방문교육 등
글로벌상생협력센터	업종별 교육 등	59,837	454개 과정 운영
총계	69,474		

* 모든 협력사 대상 경쟁력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2·3차 협력사 품질/기술 향상

1차 협력사에 납품하는 2·3차 협력사의 품질 및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 역시 완성차의 품질 향상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품질·기술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파견하여 자동차 관련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무상으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도 (품질·기술봉사단)

구성	업종별 전문위원
기간 및 빈도	연간 3~12개월 간 무상으로 생산기술 관련 취약사항에 대한 지도
지도분야	절삭가공, 프레스, 열처리, 용접, 도금, 단조, AL 주조, PL사출, 고무, 도장, 전기전자, IT, 안전

경영 컨설팅 (협력업체 지원단)

구성	완성차 임원 출신 자문위원
기간 및 빈도	연간 3~12개월 간 경영 전반에 대해 무상으로 협력사 컨설팅
컨설팅 분야	연구개발, 생산, 생산기술, 품질, 물류, 원가, 경영지원

장기 협력체계 구축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은 완성차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부품을 직접 납품하는 1차 부품 협력사, 1차 협력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사, 그리고 일반 제품을 납품하는 일반구매 협력사와 함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상생협력안추진팀을 중심으로 협력사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사 자금지원, 교육, 복지지원 등을 통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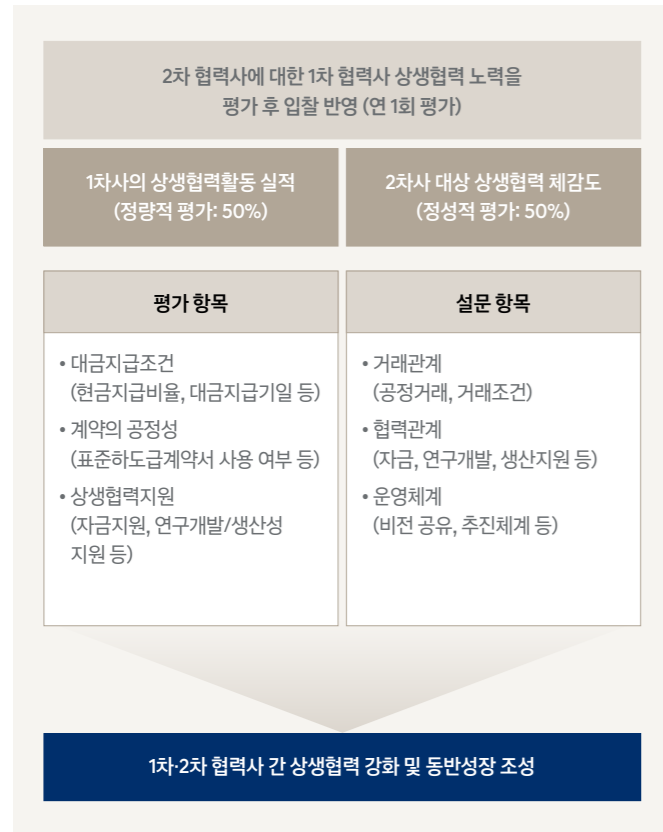
평균거래 기간	34년 (현대/기아) (국내 중소 제조업 평균수명 12.3년)
기업규모 성장	매출 규모 4.4배 증가 (*2001년 대비 2021년 성과)
해외 동반진출	해외 동반진출 749개사

* 분석대상: 1차 부품 협력사 (계열사 및 의존도 10% 미만 부흥 비전문업체 제외)

상생협력 5스타 제도 운영

1·2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부터 상생협력 5스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추진 노력을 연간 1회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결과를 신차 입찰에 반영하는 방식이며, 최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5스타 평가 프로세스



5스타 제도 운영 (품질/기술/납입)

현대자동차는 5스타 제도를 운영하여 협력사의 품질/기술/납입 수준의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선 동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당사와 협력사의 품질/기술 경쟁력 강화, 품질 관리비용 절감 및 협력사의 독자 수출능력 확보 등의 효과를 이르고 있습니다.



R&D 기술 지원

R&D 기술 지원은 당사가 보유한 R&D 기술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며 협력사의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R&D 역량을 향상시켜 협력사 스스로 기술 개선을 가능하게 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밑바탕을 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례에 대한 현장 교육과 기능/설계개념 교육을 통해서 품질에 대한 협력사의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기술 지원 과정 중 협력사 요청 개선사항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면서 소통과 협력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스트 엔지니어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신차 개발 시 협력사의 엔지니어가 일정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의 연구소에 상주하며 부품설계·성능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게스트 엔지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총 31개사의 엔지니어가 월 평균 440명 파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스트 엔지니어는 신차 부품 설계 및 성능 개발 등 연구개발에 협업함으로써 현대자동차의 개발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으며, 이후 협력사로 돌아가서 각 사의 기술력 향상과 개발 효율성 증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스마트공장 육성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전 생산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스마트공장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품 결함을 예방하는 초중중물 검사 시스템, 로트 추적관리 시스템, 폴프루프 시스템의 구현과 제조공정 데이터 전산화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스마트공장 육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50여 개사를 지원하였고, 2019년부터는 3년간 매년 50억 원을 출연하여 650여 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업체당 지원 규모를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확대하여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리드타임이나 불량률 등 생산공정에서의 비효율성은 감소시키고 공정데이터는 전산화하여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특허권 무상 제공

현대자동차의 제품 기술력 향상 및 사업화를 위해서 협력사와의 기술 공유는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획득한 특허를 무상으로 협력사에게 제공하고,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특허를 이전하는 특허권 무상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무상 제공은 매월 특허권 제공 리스트를 협력사에 공유하면 협력사들의 특허권 이전 신청을 받아 당사가 현장조사 및 지원 상담을 통해 검토하여 특허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 이전 이후에는 협력사의 특허 활용 사례에 대해 R&D 협력사 신기술전시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권 무상 제공을 통해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협력사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ESG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관리전략은 협력사의 품질, 기술, 공급 안정성, 공정거래 준수, 친환경적 생산체계 구축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ESG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있으며,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협력사 대상으로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및 원부자재를 구매·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리스크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 ESG 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 협력사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선조치를 이행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ESG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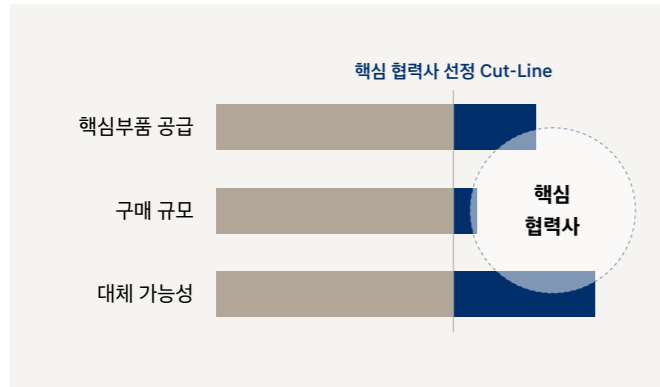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및 확산



현대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

현대자동차는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ESG 기준으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동규범은 규범의 제정 목적, 적용 대상, 협력사의 책임과 역할을 포함하고 있으며,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ESG의 주요 영역에 대한 준수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경영이사결정 및 사업운영에 있어 본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현대자동차와의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 협력사 선정 기준



협력사 분포 현황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Tier1 기준 약 1,860사와 부품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들 협력사들은 현대차 공장이 설립된 지역(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중남미, 동남아 등)뿐만 아니라 그 외 기타 지역에서도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품사들 중 미래핵심기술부품(수소연료전지부품, 배터리부품, 제어부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들과 우수한 기술력 및 부품의 특수성(대체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업체들은 핵심협력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Tier1 62사, Tier2 20사가 이에 해당되며, 이들 협력사들은 공급망 ESG 측면에서도 우선순위에 포함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협력사 분포 현황

대분류	소분류	업체 수	구매비중 (%)
1차 협력사	총 부품 협력사	1,860	100
	- 국내 협력사	380	59
2차 협력사	- 해외 협력사	1,480	41
	핵심 협력사	62	65
2차 협력사	핵심 협력사	20	-

책임있는 광물 관리

책임있는 광물 관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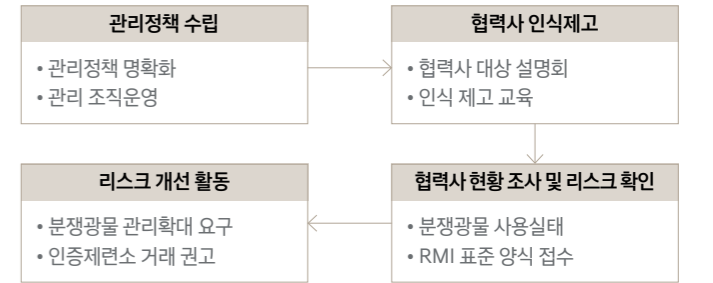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분쟁광물 관리 정책

현대자동차는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분쟁광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에 명시된 방침에 따라, 당사에 공급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분쟁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포함한 원재료(광물) 적용 시 인권침해, 윤리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협력사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은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책임있는 광물 관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관련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분쟁광물 관련한 OECD 가이드, 미국 도드-프랭크 규제개혁법에 따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 EU의 분쟁광물 규제등을 기반으로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을 수립하여, 분쟁광물 및 코발트에 대한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OECD 분쟁광물 가이드를 지지하고, RMI(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인 CMRT/CRT(Conflict Minerals Reporting/Cobalt Reporting Template)를 준용하며, 이에 의거하여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책임 있고, 명확한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협력사가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을 받은 제련소와 거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협력사 인식 제고	현대자동차는 책임있는 광물 관리정책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협력사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당사의 책임있는 광물 구매 정책 안내 및 협력사의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 협력사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분쟁광물 관리 계획에 따라 협력사 대상 분쟁광물 관리 배경, 분쟁광물 규제동향, RMI의 표준양식 소개 및 조사 계획, RMAP 인증제련소 거래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분쟁광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현황 조사 및 리스크 확인	현대자동차는 아프리카 10개국(공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부룬디, 수단,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탄자니아) 등 분쟁지역에서 불법 또는 비윤리적으로 채굴/유통되는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분쟁광물과 코발트의 사용여부에 대해 협력사에 CMRT/CRT 자료를 요구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제출한 CMRT/CRT 자료를 기반으로 RMAP 인증제련소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개선 활동	현대자동차는 공급망 내 분쟁광물 리스크를 완화하고, 협력사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및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에 안내하여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분쟁광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분쟁광물 사용 현황 및 제련소를 모니터링하고, 모든 협력사에 RMAP 인증제련소와 거래를 권고하며, 나아가 협력사의 공급망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물 구매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ESG 평가체계

협력사 리스크 진단 지표 운영

현대자동차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품사간(Tier1-Tier2 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스타 평가제도(품질/기술/납입/상생협력 5스타)를 운영하여 공급망 관리에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급망 ESG와 관련하여, 기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급망 운영을 위해 공급망내 존재하는 ESG 리스크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ESG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SG 주요 영역인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과 관련된 협력사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국내외 법률 및 규제, OECD의 실사지침(OECD

Due-diligence Guideline), 책임있는 사업자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자동차 산업내 주요 이니셔티브(Drive Sustainability 등)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공급망ESG 진단 및 개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면 진단

1차 협력사와 핵심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사는 각 평가지표에 대한 응답을 시행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데이터, 콘텐츠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력사가 입력한 내용은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확인하고, 고위험 협력사를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협력사 리스크 진단 지표 구성



고위험 협력사 대상 현장실사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고위험 ESG 리스크 및 잠재된 ESG 리스크가 확인된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대자동차와 제3자(평가기관)가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하며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ESG 평가결과에 대한 비교검증의 기능과 서면평가로는 확인할 수 없는 리스크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방문 시 평가기관이 협력사의 상황에 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협력사에게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협력사 리스크 진단-실사 프로세스



2021년 협력사 리스크 평가결과

	구분	업체 수	비고
서면진단	1차 협력사	380	-
	핵심 1차 협력사	62	-
	핵심 2차 협력사	20	-
고위험 협력사 선정	1차 협력사	10	서면진단 대상 중 2.6%
	핵심 1차 협력사	10	서면진단 대상 중 16%
현장실사	핵심 2차 협력사	0	-
	현장실사 대상 협력사	10	고위험 협력사 중 100%
고위험 협력사 개선조치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완료 협력사	19 ¹⁾	고위험 확정 협력사 중 100%

¹⁾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결과 고위험 협력사 10개,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 이외 별도 안전 리스크 점검 결과 등 고위험 협력사 9개 포함

리스크 확정 및 개선

핵심 협력사와 ESG 평가결과 고위험업체로 분류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확인된 고위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선조치 이행,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ESG평가 및 현장실사 대상 협력사를 확대하여 공급망 ESG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생협력5스타제도는 전체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협력사 선정 시 평가점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협력사 개선 지원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 결과와 함께, 협력사가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환경 분야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협력사의 ESG 리스크 개선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 140개사를 대상으로 사내 안전보건 전문가와 함께 정밀 점검활동을 추진하고, 138개사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가이드 및 우수사례 배포, 안전보건에 관한 최신동향 세미나와 3시간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사업운영 과정에 직면할 수 있는 환경 관련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생산공정 및 부품 내 유해물질 사용 금지와 유해물질 함유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등록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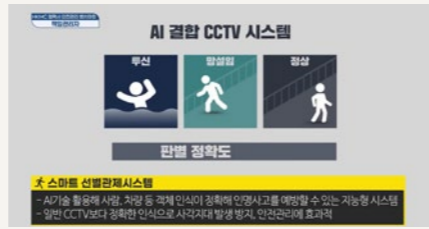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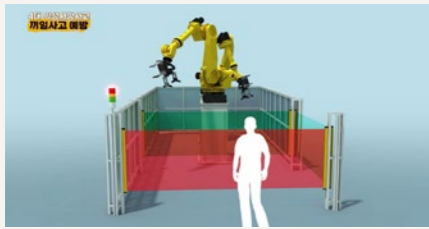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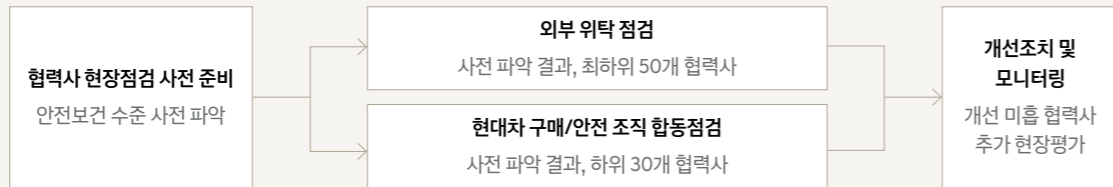
안전보건 우수협력사 현장 견학 지원

안전관리 우수협력사를 사전 발굴하고, 협력사 안전담당 중역 및 실무자와 함께 우수협력사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별 상황에 맞게 우수사례를 적용하여 안전관리 개선의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가이드 및 우수사례 배포

협력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건가이드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협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교육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개선 프로세스



공급망 지속가능성 향상 목표

현대자동차의 공급망 관리 전략은 협력사의 품질, 기술, 공급안정성, 공정거래 준수, 친환경적 생산 체계구축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ESG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사의 안전·보건과 환경경영, 그리고 ESG 리스크 평가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모든 협력사가 화재, 폭발, 안전사고, 오염물질 유출, 자연자본 훼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구 OHSAS 18001])과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등)을 인증받도록 지원 및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안전·환경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사 대상 안전·환경 표준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협력사 안전·환경 점검을 실시하여, 협력사의 안전·환경 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효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안전·환경 사고 발생 협력사에 대해서는 업체선정 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으며, 거래관계가 중단된 협력사는 안전·환경 인증을 취득해야 현대자동차와 거래를 재개하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협력사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등 ESG 리스크를 관리 중에 있으며, 2022년부터는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협력사 ESG 평가는 향후 공급망 내 ESG 리스크를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향상 목표

구분	성과			목표
	2019년	2020년	2021년	
1차 협력사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87%	91%	92%	2024년 100% 달성
1차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범위 확대	-	20%	20%	2024년 100% 달성
협력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축 지원	-	-	신규과제	2024년 100% 달성

공급망 관리전략 5대 우선순위



고객

제품품질 혁신

현대자동차는 ‘고장 없는 무결점 품질의 자동차’라는 품질철학과, 안전 분야 신기술을 바탕으로 운전자, 승객, 보행자를 보호하는 Zero Accident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개발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품질안전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판매 후에도 조기감지 - 조기개선 - 조기조치하여 품질안전 문제의 대형화를 예방하는 등 전과정의 품질안전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품질안전 신고센터 운영, 안전정보 분석, 안전시험 조사장 설립 등 고객만족 극대화과 신뢰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제품 품질관리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의 선형 품질 기준을 확보하고, 기술적 예방품질 활동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고객의 안전’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고객의 다양한 품질안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사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각 생산사업장 또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자동차 설계, 부품 개발, 공정 운영, 선형 양산, 생산 등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구축 현황



품질관리 표준 및 기법 운영

현대자동차는 ‘무결점 품질’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적용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기법은 연구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Man)’, ‘최적의 설비(Machine)’, ‘최고의 부품(Material)’, ‘최선의 방법(Method)’, ‘철저한 검증(Measurement)’, ‘무결점 품질의식(Moral)’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전동화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전동화 차량별 특화 품질관리 표준 및 기준을 제정·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품질확인, 발생사례, 개선활동 등 품질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수집 및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표준 및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 차량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기법’



품질 리스크 선형관리

디자인, 설계 등 신차 개발 초기부터 부품 협력사 사전 검증 및 생산공정 품질을 점검 및 관리합니다. 제품의 도면을 기반으로 부품의 기능·구조·신뢰성·내구성 점검, 협력사 공정 검사, 생산공정 자체 검사 등을 종합하여 최종 품질을 승인함으로써 품질 리스크와 관련한 생산공정 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차량에 대한 자체 검증뿐만 아니라, 고객 및 품질 관련 전문기관의 시승주행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며, 개선활동을 수평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품질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특히 신차 양산 이전 최종 단계에서 품질 리스크 점검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최고경영층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품질 리스크 평가 - 발굴 및 개선

생산 과정의 차량 품질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통계적 공정 관리, 정기검사, 출하 합격을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품질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품질 개선을 위한 합동조사 및 대책마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 협력사 공정 관리, 품질예방 활동 평가, 품질 검사장비 유효성 검증, 부품 신뢰성 시험 등 차량 생산과정에서 품질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품질 공감 캠페인 실시

자동차 개발, 생산, 판매 이후 전 과정에서 품질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의 품질 최우선 마인드가 내재화되도록 ‘품질 공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 공감 캠페인은 ‘고객 등의 품질 진단과 임직원 의견 공유’, ‘고객 및 임직원간 간담회’, ‘생산품질담당 고객 초청 간담회’ 등으로 진행하여 고객의 품질 관련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는 자리입니다.



품질 공감 캠페인



품질 검증역량 강화 교육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차 품질 검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고객에게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과 임직원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다양한 품질 개선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품질 검증역량 강화

현대자동차는 품질 밸류체인 전반의 검증 역량 강화를 위해 선형, 제조, 시장품질 각 분야의 역할과 주요 업무에 대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증역량 강화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각 교육과정들은 기초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실습 및 체험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화 전환에 따른 신기술 검증, 고객 관점 품질문제 검증 강화를 위해 외부 교육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품질검증 전문가 과정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 검증역량 강화 교육과정

- 기간: 2021년 1월 ~ 12월
- 참여: 총 1,086명
- 과정: 제어기 품질검증 전문가 교육(제어기 SW 테스트, 차량 통신시스템 이해 및 분석, 차량제어 시스템 이해 외), 차량 진동소음 이론 및 실습, 자동차 구조 및 분해 조립, ADAS 주요기술, 전기차용 배터리 시스템 이해 등



품질 보증 및 관리

현대자동차는 차량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품질관리는 물론, 판매 이후 고객 안전과 보호를 위한 품질 보증 및 관리 활동을 확대 추진하여 고객의 안전은 물론 가족의 행복까지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을 구체화하여 고객 만족을 위한 품질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서비스 정비 방법 정합성 평가 및 진단방법 개선 등 정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루 기본점검

블루멤버스 회원 대상으로 차량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기본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용 8년간 8회, 상용 3년간 7회) 기본점검은 고객의 안전과 편의에 있어 필수 사항인 엔진룸, 차량 하부 및 일반 점검으로 진행합니다.

보증수리

고객이 차량을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 해당하고, 보증주행거리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보증수리를 제공합니다. 차량의 고장원인이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기술적으로 밝혀진 경우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

차량 고장으로 주행이 어려울 경우, 현장 응급조치, 간단한 정비, 지정 정비업체 입고를 도와주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보증기간내 차량을 대상으로 출고 후 6년까지 무상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현대자동차는 승용, SUV, 상용(트럭, 버스) 등 차량 종류별 평균 수명주기, 내구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객의 차량 사용주기, 주행습관 등을 고려하여 보증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에 적용되는 별도 엔진 및 동력전달 주요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차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생산한 배출가스 다배출 차량에 대해 촉매장치, 전기제어장치, 기타 배출가스 부품을 보증하는 등 차량 주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리콜

고객의 불만사항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제조상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차량 리콜을 모두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리콜이 확정된 경우, 고객에게 결함사항, 시정조치, 무상서비스 등 보상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콜 및 품질 보증으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기 위해 판매보증 총당금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승용)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기간

구분	차종	보증기간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그랜저 Hybrid, 쏘나타 Hybrid, 아이오닉 Hybrid, 아이오닉 Plug-in, 아반떼 Hybrid	10년 / 20만 km
전기차 전용 부품	아이오닉 Electric	10년 / 16만 km

자발적 리콜 현황 (단위: 만 대, 백만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리콜 차량 수	157	196	623	272
리콜로 인한 비용	170,700	78,000	305,200	1,442,300

판매보증 총당금 설정 현황 (단위: 백만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당기초 설정 판매보증 총당금	5,226,297	5,177,128	5,447,307	8,514,173
해당기간 발생한 판매보증 비용	1,765,815	2,261,010	1,963,782	2,551,716

* 연결회계 기준

제품 안전기술

안전사고 사전 예방

모빌리티, 전동화, 연결성, 자율주행 등 자동차의 목적이 '단순이동'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공간'의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범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안전 개념이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직접적 주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기술은 물론, 탑승자와 보행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첨단 안전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사고 외 다양한 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까지 대응하기 위해 운전자 및 탑승자 모니터링, 유해환경 대응, 승하차 안전, 원격 차량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중충돌방지 자동 제동(Multi Collision Brake)

다중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은 정측면 등 충돌사고로 인해 에어백이 전개되는 경우, 차량에 적절한 제동 기능을 작동시켜 2차 사고 등 다중 충돌을 경감시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고 회피 또는 예방 차원을 넘어, 사고 이후의 상황을 한번 더 파악하고 운전자와 탑승자뿐만 아니라, 사고 차량 주변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카메라, 레이더 등 첨단센서로 사물과 움직임을 인식하고, 충돌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차량을 스스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술은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으며, 교통 카메라 및 표지판을 인지해 속도를 줄이는 수준입니다.



다중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복합충돌 에어백 시스템



액티브 후드 시스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주요 기능

전방 충돌방지 보조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선행 차량이 급격히 감속하거나, 전방에 차량 혹은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전방 충돌 위험을 경고하거나 자동으로 제동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Lane Keeping Assist)	일정 속도 이상 주행 중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차로를 이탈하는 경우, 이탈 경고를 하거나 자동으로 조향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Blind-Spot Collision-Avoidance Assist)	주행 중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 시 경고하며, 평행 전진 출차 중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 보조

자율주행 리던던시 시스템(Redundancy System)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운전자의 개입이 줄어들수록,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밀한 안전기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시 시스템 고장이 감지된 경우, 차량을 안전하게 주행 및 정차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자율주행 리던던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리던던시는 조향, 제동, 전력, 통신 등을 이중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보조장치가 이를 대체해 차량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리던던시 시스템 이외에도, 차량 사이버 보안 기능 강화, 카메라 및 라이다 센서 오염 방지 기술 등을 종합하여 높은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한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아이오닉 5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차량을 라이드 헤일링(Ride-hailing) 서비스에 투입함과 동시에, 차량 공유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운전자 보호

다중충돌방지 자동 제동, 첨단 운전자 보조, 자율주행 리던던시 시스템 등 차량 주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사고발생 시 운전자 및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도 중요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플랫폼 기능 강화 및 활용, 충돌 예방 및 완화 기술 적용, 에어백과 같이 사고발생 시 부상을 낮추는 장치 등을 연구개발하여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습관가이드 방송', '통학차량 안전운전 캠페인',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보험할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충돌 에어백 시스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복합충돌 에어백 시스템은 1차 충돌에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만큼 충격이 약할 경우, 탑승자의 불안정한 자세와 속도 등 여러 조건을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이후 충돌에서는 기존 충격 강도를 낮추거나, 작동 시점을 조절해 에어백이 더 쉽고 빠르게 작동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세대 통합 플랫폼

자동차 플랫폼은 디자인, 주행성능, 안전성, 실내공간 등 자동차의 기본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3세대 통합 플랫폼은 실내공간 확보, 승객공간 강도 극대화 등 안전성 강화, 동력/연비 향상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주행환경에 안정적 주행성능 구현이 가능합니다.

3세대 통합 플랫폼 특징

실내공간 확보	안전성 강화	동력/연비 향상	안정적 주행성능
엔진룸, 시트, 언더플로, 러기지룸 등 하향 배치	골격 구조 재배치하여 충돌에너지 분산	언더바디 저상화, 편평화로 공기 저항 저감	운전자 의도에 즉각 반응하는 핸들링 및 안정감

3세대 통합 플랫폼 유형별 적용 차종

구분	K3 플랫폼	M3 플랫폼	N3 플랫폼
차종	아반떼	G80, G90, GV70, GV80	스타리아, 쏘나타, 투싼

보행자 보호

현대자동차는 차량 사고발생 시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차량의 형태 및 엔진룸의 구조 개선을 통해 보행자와 충돌 발생 시 충격을 완화하거나,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순간을 감지하여 후드 등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보행자의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차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라이더 등 센서를 기반으로 보행자를 구분하고, 능동 브레이크 시스템과 같은 안전 시스템을 작동시켜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액티브 후드 시스템

현대자동차의 액티브 후드 시스템은 보행자와 충돌하면 차량이 충돌을 감지하고, 보닛을 들어 올려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한 경우, 보닛 아래 작동기가 움직여 보닛이 6cm가량 올라가게 되며, 보닛과 엔진룸 사이 충격 흡수 공간이 생겨 보행자의 부상 정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성 평가

2022 IIHS 안전성 평가

2022년 2월 24일, 현대자동차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실시한 충돌 안전성 평가에서 9개 차종이 'Top Safety Pick Plus (TSP+)' 등급을, 4개 차종이 'TSP'로 평가받았습니다. IIHS는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정성과 충돌 예방성을 종합 평가하여,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양호한 수준인 차량에는 'TSP' 등급을 부여합니다. IIHS의 안전성 평가는 운전석 충돌(Driver-side Small Overlap Front), 조수석 충돌(Passenger-side Small Overlap Front), 전면 충돌(Moderate Overlap Front), 측면 충돌(Side), 지붕 강성(Roof Strength), 머리지지대(Head Restraint),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차량 대 차량, 차량 대 보행자), 전조등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SP+' 등급에는 현대자동차의 넥쏘, 싼타페, 투싼, 팰리세이드, 제네시스의 G70, G80, G90, GV70, GV80이 포함되었으며, 'TSP' 등급에는 현대자동차의 베뉴, 싼타크루즈, 소나타, 아반떼(미국 현지명 엘란트라)가 포함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IIHS 충돌 테스트 종합결과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의 높은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브랜드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2 IIHS 안전성 평가 선정 차량

구분	톱 세이프티 픽 (TSP)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TSP+)
현대자동차	베뉴	넥쏘
	싼타크루즈	싼타페
	쏘나타	투싼
	아반떼(엘란트라)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	G70
	-	G80
	-	G90
	-	GV70
	-	GV80



넥쏘 싼타페 투싼 팰리세이드



G70 G80 G90 GV70 GV80

2022 완성차 기업별 IIHS 안전성 평가 선정 차량 수

■ 2022년 TSP ■ 2022년 TSP+



* 2022.02.24. 발표 기준

고객경험 혁신

현대자동차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고, 그 결실을 전 세계 모든 고객들과 나누면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를 연결하고 시너지를 창출하여 가치있는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앞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며, 브랜드 비전과 연계하여 고객의 친환경-공익적 가치소비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항상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고객이 본연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극대화

글로벌 서비스 전략 추진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분화된 고객 유형별로 최적화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거점을 다각화하며, 애프터서비스 전 과정에서 차별화된 디지털 고객 경험 프로세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맞춰 해외권역 및 판매법인, 특히 신규설립 법인의 고객 서비스 전략 방향성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중장기 전동화 로드맵에 맞춰 전기차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전기차 전용 차량 관리, 차량 충전, 고전압배터리 수리 최적화 등 전기차 사용 고객이 운행 중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작년 당사 기능중심 조직 개편 이후 승용·상용 사업 부문이 통합되었고, 이에 당사는 글로벌 승용·상용 고객 서비스 강화 및 조직 통합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COVID-19 팬데믹 사태에도 비대면 이동형 차량 수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메신저 기반 커뮤니케이션 확산 등 팬데믹 상황에 맞춘 고객 케어를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별 시장 특성 및 고객의 기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 전략으로 글로벌 고객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고객만족 대외 평가결과

 국가고객만족지수 (NCSI)	고객기대수준, 고객인지품질, 고객인지가치, 고객불평률, 고객충성도로 고객만족 수준을 평가 (국가, 업종, 기업간 비교 가능)	5개 부문 1위 준중형, 중형, 준대형, 대형, RV
 한국품질만족지수 (KS-QEI)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고객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우수성과 만족도를 평가	12개 부문 1위 준중형/대형/중형 승용, 소형/준중형/중형/대형 SUV, 전기차, 자동차 AS 등

 한국산업고객만족지수 (KCSI)	고객기대수준 충족, 부가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과정의 신뢰성, 친절성, 적극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일반승용, RV 부문 1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KS-SQI)	고객기대수준 충족, 부가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과정의 신뢰성, 친절성, 적극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자동차 A/S 부문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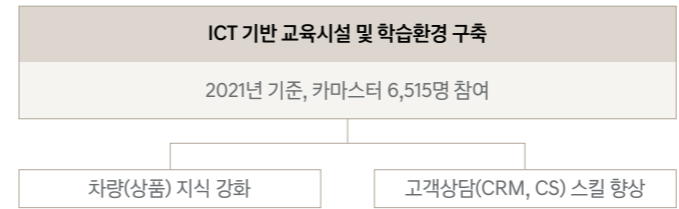
고객 응대 표준 가이드 활용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전사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고객만족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차량 구매 과정에서 고객이 경험하는 응대 순서에 입각하여 '고객 응대 표준 가이드'를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표준 가이드'에서는 명확한 고객 응대 방향성을 제시하여 고객접점 채널 임직원이 핵심 응대요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객접점에서 균일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판매 부문 서비스 융복합 교육

현대자동차는 차량 판매, 상품 CS 등 고객접점 채널의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ICT 기반의 서비스 융복합 교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차량 판매, 고객 응대,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차량(전동화, 고급차)에 대한 지식 강화 교육과 고객상담(CRM, CS) 스킬 향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비스 융복합 교육체계 운영 등으로 인해,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부문 고객만족도(KCSI, 한국산업고객만족지수) 점수는 전년 대비 1.0점 증가하였습니다.

판매 부문 서비스 융복합 교육체계



승용차 부문 고객만족도(KCSI, 한국산업고객만족지수)	(단위: 점)		
	2019년	2020년	2021년
점수	89.9	91.8	92.8

과잉정비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한 서비스로 인한 고객의 피해 발생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원활한 보상을 위해 '과잉정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차량수리를 의뢰할 경우, 차량 수리내역에 대한 고객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고객 신뢰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수리비 과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0%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한 정비협력사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잉정비 예방 프로그램



서비스 거점 구축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거점을 구축하여 정비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직영 서비스센터와 공식 서비스 협력사인 ‘블루핸즈’로 구성된 약 1,400여 개의 전국 서비스 거점 중, 전기차 전담 ‘블루핸즈’ 370여 개, 제네시스 차량 전담 ‘블루핸즈’ 500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브랜드	
블루핸즈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 협력사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은 물론,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블루멤버스	현대자동차 오토 대상 서비스 고객이 즐겁고 편리하게 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블루링크 	현대자동차 커넥티드 카 서비스 고객의 차량 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길안내, 컨시어지 기능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전기차 전담 ‘블루핸즈’는 2022년 말까지 120여 개를 추가 개소하여 포함 약 500여 개의 전기차 정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블루핸즈’에서 전기차 정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소전기차 전담 ‘블루핸즈’도 200개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서비스	
찾아가는 비포 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차량점검 및 정비상담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고객이 희망하는 곳을 방문하여 22~44km 주행 가능한 7kWh를 무상 충전
홈투홈 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차량을 인수, 수리 후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
대여차 서비스	보증수리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운행불가 기간 동안 차량 대여
제네시스 특화 서비스	
버틀러 서비스	제네시스 구매 고객 대상 1:1 전담 버틀러 지정 서비스
찾아가는 오토케어 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하여 엔진오일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 제공
에어포트 서비스	김포공항 이용 고객 대상 무상 발렛 서비스 및 여행 중 소모품 교환 서비스 제공
홈투홈 서비스	제네시스 모빌리티케어 개수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홈투홈 서비스

서비스 거점 기술·정비 역량 강화

현대자동차는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의 기술·정비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거점 엔지니어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최우수 엔지니어 양성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거점 대상으로 정비지침서, 차량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기술·정비에 관한 지식 교환을 위한 워크샵도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정비 엔지니어 기술 인증(HMCP)

블루핸즈 우수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독자적인 기술 인증 프로그램인 HMCP (Hyundai Master Certification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MCP 전문가 자격 인증을 위해 차량의 ‘편의장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오디오/비디오/네비게이션, 엔진, 차량통신, 수소전기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특화 사양 등 9개 분야에서 엔지니어의 기술 역량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 엔지니어의 기술 역량 수준에 따라 레벨1~2(테크니션), 레벨3(마스터), 레벨4(그랜드마스터)의 4개 등급 자격 인증이 부여됩니다. 2021년에는 ‘그랜드마스터 테크 페스타’를 실시하여 17명의 엔지니어에게 HMCP 기준 레벨4 자격을 인증하였습니다.

전기차 정비 엔지니어 기술 인증(HMCPe)

현대자동차는 독자적 기술 인증 프로그램 HMCP의 교육 및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차 정비 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높이고 고객 응대를 강화하기 위한 전동화 기술 인증 프로그램 HMCPe(Hyundai Master Certification Program Electrified)를 도입하였습니다. HMCPe를 통해 전기차 진단, 수리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불편함 없이 전문적이고 안전한 정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전국 블루핸즈의 HMCP 그랜드마스터 중 ‘독자적인 전동화 진단 및 수리가 가능하고, 고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2,032명 엔지니어에게 e-Master 자격을 인증하였습니다.

정비지침서 및 매뉴얼 배포

직영 서비스센터, 블루핸즈, 또는 자가수리가 가능한 개인을 위해 현대자동차 차량의 정비지침서, 전장회로도 등을 매뉴얼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술정보웹사이트(gsw.hyundai.com)에 가입 후, 전장회로도, 코드별 진단가이드, 차체매뉴얼, 정비지침서, 와이어링 커넥터, 분해조립, 단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부품이 있을 경우 현대모비스 순정부품 조회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이 차량의 유지비를 절감하면서도, 신속·정확하게 A/S 받을 수 있도록, 정비지침서 및 매뉴얼 등을 지속 제공할 것입니다.

블루핸즈 정비인력 양성 지원

국내 대학교, 기술교육원 등 차량 정비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우수 정비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각 정비 교육기관에서는 차량 정비 전문지식, 차체수리 방법, 수리장치의 사용법 등 차량 관련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정비 전문강사 파견, 실습용 차량 및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현대자동차 정비 협력사인 ‘블루핸즈’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브랜드

브랜드 관리 시스템 구축

기업 브랜드 및 제품 단위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브랜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가 동일한 방향성 아래, 일관성 있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체계를 비롯하여 차량기술·서비스 등에서의 브랜드 및 상표 체계인 '브랜드 아키텍처'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에 대한 시각적인 구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뉴얼로써 '브랜드 이미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전 부문에 배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 체계, 브랜드 아키텍처, 브랜드 이미지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하고자 브랜드 관리 시스템(BMS, Brand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포털 웹사이트인 '브랜드홈'과 헬프데스크인 '브랜드데스크'를 구축하여 전 부문의 브랜드 관련 제작물의 품질 향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지표 추적 조사(Brand Tracking Study)

현대자동차는 33개 주요 국가(판매시장)를 대상으로 브랜드 지표를 추적 조사하는 BTS(Brand Tracking Study)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잠재)고객의 현대차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선호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브랜드별 가격, 성능, 품질, 그리고 친환경성 분야로 구분하여 지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및 상표 이미지의 적용 실태를 정기 검수하는 글로벌 브랜드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하여, 전사 브랜드·상표 전략, 체계,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Brand Tracking Study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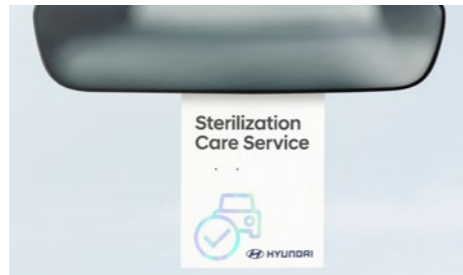
가격	경쟁사 대비 당사 차량 가격에 대한 고객의 수용성 (Price Perception 조사 기반)
성능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High-tech Competence, Design Competence 항목 등의 점수 분석
품질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Good Value, Care-free Ownership, Service Quality 항목 등의 점수 분석
친환경성	시장 평균 = 100을 기준으로, Environmental Friendliness, Social Responsibility 항목 등의 점수 분석 Green Vehicle 차종을 따로 분류하여 Green Vehicle이 Aided Awareness, Brand Perception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분석

브랜드 이미지 강화 활동 및 평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과 연계한 브랜드 가치 제고 마케팅 활동과 더불어, 친환경·공익성 등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브랜드 캠페인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추진, 우량 딜러 중심 판매 네트워크 효율성 강화, COVID-19 지속 확산 지역에서의 온라인 마케팅, 지구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CSV 활동 추진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활동 이후에는, 해당 활동이 기업가치 향상, 차량판매 증가, 고객만족도 증대 등 사업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비전 연계 프로젝트, for Tomorrow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for Tomorrow'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for Tomorrow' 프로젝트는 교통·주거·환경 등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각계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프로젝트입니다. 'for Tomorrow'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자동차 브랜드 비전인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를 확산·전파하며, 더 많은 인류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전 세계 구성원들은 'for Tomorrow' 프로젝트 플랫폼(www.fortomorrow.org)을 통해 자유롭게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COVID-19



for Tomorrow



H₂U(Hydrogen To You) 캠페인

수소 캠페인

모든 형태의 운송과 기술에서 탄소 배출이 사라지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가 합의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재생에너지의 공급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린수소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에 지구사회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와 수소 에너지 브랜드 구축 및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비전 공유 및 전파, 인도네시아 인베스터 데일리 서밋 2021

2021년 7월, 인도네시아 '인베스터 데일리 서밋 2021(Investor Daily Summit 2021)'에 참가하여 아태 지역 주요 인사들과 인도네시아 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 사업 활성화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브랜드 비전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 및 전파 하였습니다. 또한, 아세안 지역 최초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하였으며, 인도네시아생산법인인 아세안 시장을 위한 전략 차종 개발·생산 판매 역할은 물론, 아이오닉 5 등 전기차를 앞세워 동남아 신흥시장 공략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수소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동행, H₂U(Hydrogen To You)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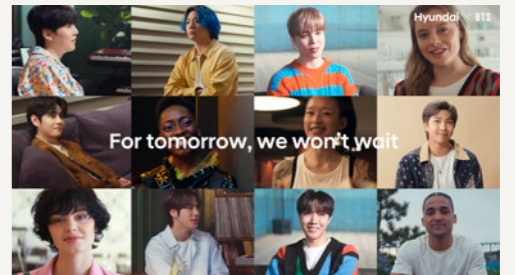
유럽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수소전기차와 수소 에너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H₂U(Hydrogen to You)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DJ이자 패션디자이너인 페기 구(Peggy Gou), 테크 전문 유튜버 알렉시벡시(Alexibexi), 건축 사진 작가 콘라드 랭거(Konrad Langer) 등 인플루언서는 캠페인을 통해 수소 사회로 전환의 시급성,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전기차 및 수소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소 사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H₂ 이코노미 캠페인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블룸버그(Bloomberg)와 함께 수소 사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소 사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일환으로 'H₂ 이코노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수소 생태계를 위한 노력의 상생 기류를 만들어 내고, 수소 사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현대자동차의 수소 경제 관련 기술 경쟁력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미국 내 캠페인 청중(Audience) 2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0%가 수소 에너지와 현대자동차의 수소 기술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소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H₂ 이코노미 캠페인의 효과성을 확인하였습니다.

Hyundai x BTS, For tomorrow We won't wait 영상

현대자동차는 2020년부터 방탄소년단과 함께 'Because of You'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 청정에너지 '수소'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전파하는 '글로벌 수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For tomorrow We won't wait'이란 주제의 특별영상을 공개하였으며, 해당 영상에는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폐기물 배출 제로, 패션 리사이클링, 식물 키우기, 친환경 수소자동차 등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활동과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등 우리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갈 것입니다.



브랜드별 차량 체험,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기아의 브랜드별 차량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HMG Driving Experien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프로그램을 론칭하여 다양한 차량의 주행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차량 주행에 관한 이론 및 스킬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현대차그룹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HMG Driving Experience Center)’를 개소하여, 4개의 체험트랙, 4개의 체험존 등 8개 코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브랜드별 체험 차량 확대와 함께, 긴급제동, 핸들링, 고속주행 등 트랙 체험, 드리프트, 돌발상황, 경사로 등 장애물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체험 기회를 통해 고객에게 전기차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생각과, 구매 계획에 필요한 체험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시민 참여 친환경 캠페인, 롱기스트런 언택트 레이스

현대자동차는 2016년부터 고객과 시민 참여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친환경 캠페인 ‘롱기스트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 롱기스트런’ 캠페인 ‘언택트 레이스’는 참가자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별적으로 원하는 코스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달리며, 달리는 중 친환경 미션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주요 국가별 라벨링 의무사항

한국	제품	차종, 차명, 차대번호, 차량 총 중량, 제작연도, 타이어 등 자기인증 정보
	환경	연비,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정보
	안전	에어백 경고 등 정보
중국	제품	차량 ID, VIN(W/screen), 도난방지 정보
	환경	연비 정보
	안전	CCC, CRS 경고 에어백 정보
유럽	제품	차량 ID, 각종 단품 인증 E-마크(램프, 안전벨트, 경적기, 미러, 글라스 등)
	환경	디젤엔진 스모크, 배터리 리사이클링, 연료, 냉매 관련 정보
	안전	에어백 경고, 임시 스페어타이어 속도 브레이크액, ISOFIX CRS 앵커 정보
북미	제품	MSRP(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정보
	환경	VECI(배출가스 인증정보 기재), 냉매 정보
	안전	타이어 공기압, 안전 인증, 에어백 경고 정보

완주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였으며, ‘언택트 레이스’ 유료 참가비는 자동차 폐시트 및 페타이어를 재활용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제로화,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윤리적 마케팅 및 제품 정보 라벨링

마케팅 및 홍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사회적 영향 정보의 허위·과장·축소 금지, 정보의 인지와 습득에 취약한 계층을 고려한 정보 전달, 동종산업의 경쟁업체 또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의 정보 전달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국가별 마케팅 및 홍보 전략 수립 시, ‘광고심의’ 관련 법률 및 규제는 반드시 준수하며, 현지의 윤리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전 검토하고 현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차량의 안전, 환경, 품질 등의 정보를 라벨링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고객정보 관리 체계 (최고책임자, 기술적 조치, 물리적 조치)

현대자동차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총괄하는 전사적 협의체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인 현대정보보호센터장이며, 개인정보 관리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각 사업 부문별 실무위원 및 개인정보보호, 법무, IT 담당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1회 회의를 실시하며, 실무위원회는 비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개인정보보호 전담팀(보안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여 전사 및 IT 유지보수 운영사,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가이드를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및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PIS), 보안성 검토 시스템(SAMS) 등을 운영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PIS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추출/처리하는 경우 선별적인 권한 부여를 통해 제한된 형태로 파일을 열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SAMS는 당사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보안컴플라이언스팀의 사전/사후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보안컴플라이언스팀은 법률에 근거한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제·개정하여 법률 및 규정 위반 시 징계의례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 정리 및 리스크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유형/건수 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규제 대응

현대자동차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20년 데이터 관련 전사적 관리방안 개선방향성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개선방향에 따라 데이터보호 전담팀을 신설하여 개선안을 수립 및 시행하고, 데이터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취급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체계

현대자동차는 정보보호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당사의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며, 담당 보안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였습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국내 법규(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규정을 그룹웨어에 게시 및 연 1회 재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훈련/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보안/사이버보안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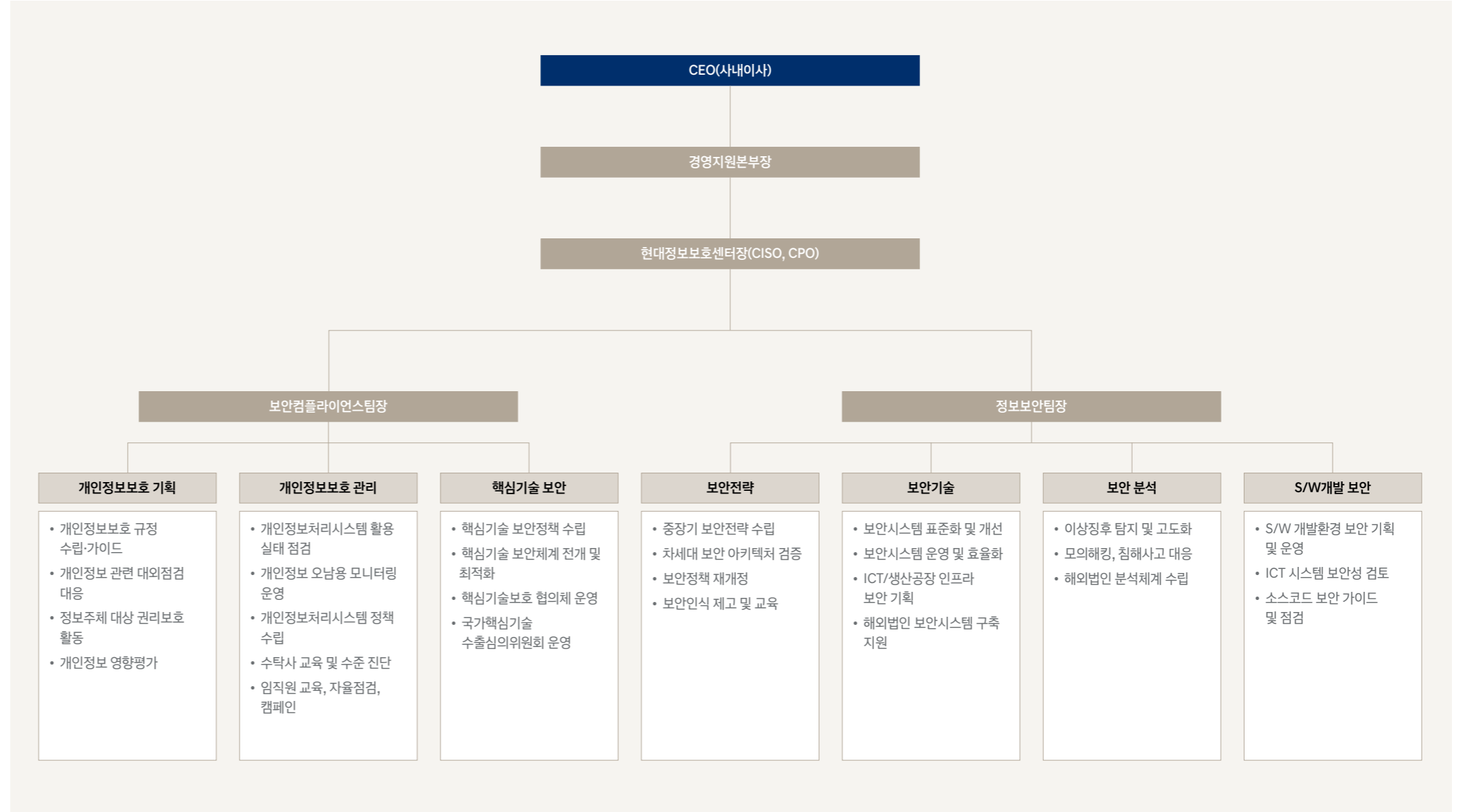
- 비즈니스연속성계획(BCP)에 따른 사고대응 절차를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지침’ 내 명시하고 반기에 1회 점검
- 2021년 5월 KISA 주관 2021년도 사이버 보안 모의훈련 참가
- 분기별 임직원 피싱메일 훈련
- 월 1회 전 임직원 대상 보안 뉴스레터 배부 및 행동강령 캠페인 진행
- 연 1회 임직원 및 조직장 대상 온라인 보안교육 진행, 랜섬웨어 대응교육 상시 진행



사이버 자산 취약성 분석

현대자동차는 사이버 자산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안성 검토 절차를 운영하여 시스템 오픈 전 인프라, 소스, 모의해킹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및 현재 운영 시스템뿐 아니라 상시 개발 중인 DevOps 환경의 시스템 취약점을 조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및 핵심자료 취급시스템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차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보안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여 개발자를 대상으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전 사업장은 지난 2006년에 최초로 ISO 27001 인증을 받은 이후, 꾸준히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의 경우 각국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정보보호센터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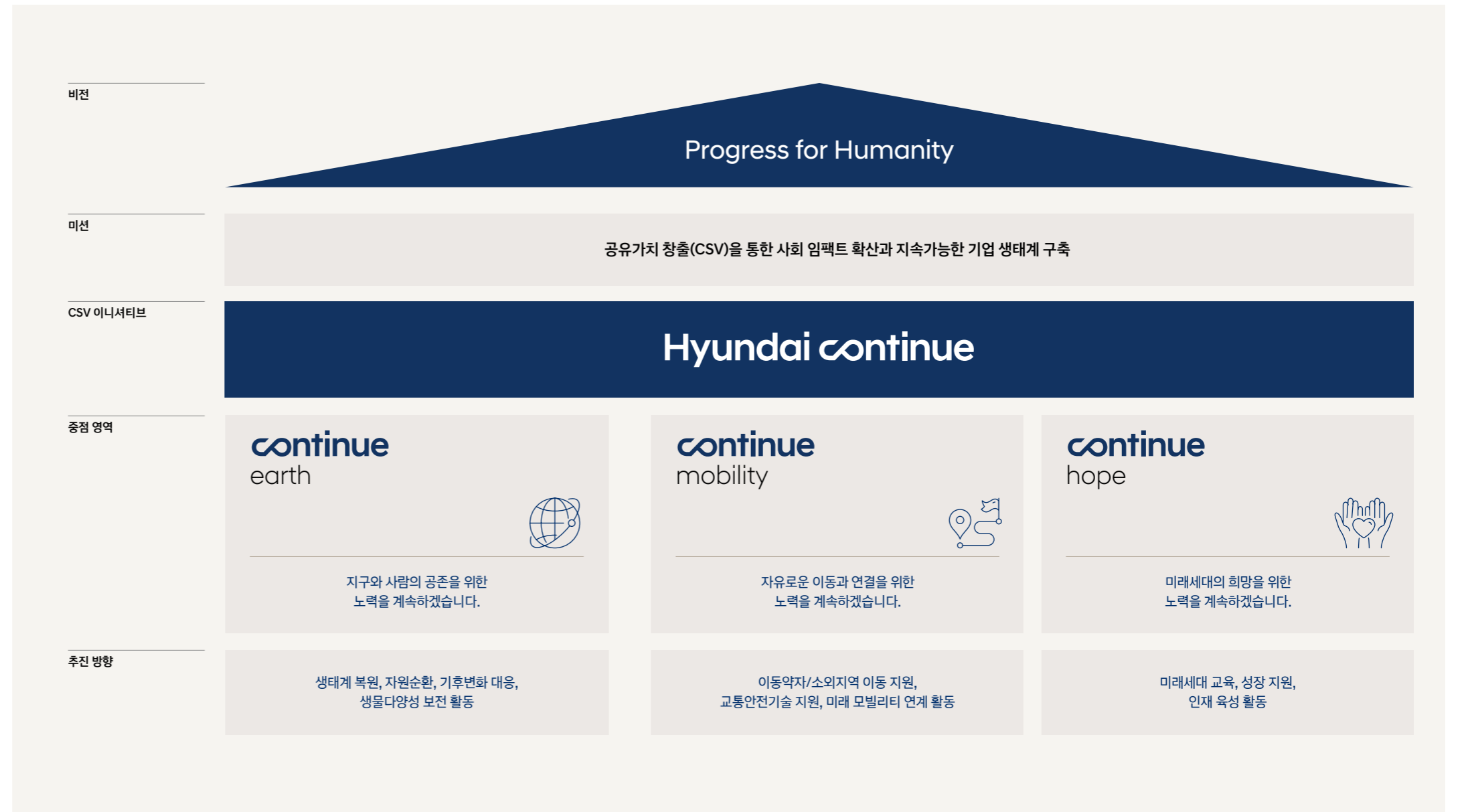
사회공헌

CSV 이니셔티브

현대자동차는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통해 사회 임팩트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담아 'Hyundai Continue'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비즈니스와 연계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와 함께 공존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연결을 제공하며 미래세대의 희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수많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임직원, 고객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연결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CSV 전략체계





국내·외 CSV 활동

친환경 (Earth)



유럽 해양 생태계 복원 및 업사이클링 활동

현대자동차 유럽법인은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며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해양 플라스틱 및 폐그물 수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스 이타카에서 현대자동차의 파트너인 헬시 씨즈(Healthy Seas)와 함께 해양 정화 및 폐그물 수거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비영리단체인 DAN이 주최하는 유럽 지속가능성 투어에 친환경 차량인 코나 일렉트릭을 제공해 다이버들의 안전한 이동을 도왔습니다.

협력 파트너인 헬시 씨즈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바다를 더럽히는 폐기물 중 하나인 어망들을 수거해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시작한 이 활동은 유럽 내 7개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네덜란드)에서 72명의 다이버와 함께, 총 78톤의 폐그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폐그물 수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한 섬유 제품을 만들어 친환경 업사이클링 및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폐그물들은 섬유 생산 업체 아쿠아필(Aquafil)을 통해 에코닐(ECONYL®)이라는 나일론 섬유로 재탄생됩니다. 에코닐은 유럽 내 판매되는 아이오닉5 차량 플로어 매트 소재로 활용되었으며, 양말, 수영복, 스포츠웨어, 카펫과 같은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Hyundai x Healthy Seas | The Journey To Ithaca](#)

아이오닉 포레스트 신시도

현대자동차와 트리플래닛은 2016년부터 5년 동안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23,25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이오닉 포레스트의 나무들은 연간 225톤의 이산화탄소와 1,100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년 동안 교실 내 미세먼지를 줄이고 다음 세대 환경교육을 위해 수도권 33개 초등학교, 924개 교실에 교실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1년부터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의 자생종 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연휴양림 공간 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 자생식물 보전 숲길을 만들고, 아이오닉 5를 지원해 친환경 차량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파트너 트리플래닛과 함께 섬 곳곳에 어린 나무를 심고, 휴양림 내 태양전망대로 가는 길을 따라 동백나무를 심는 등 총 3,400그루의 나무를 심어 고객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숲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약자 대상으로 4.2km의 순환로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아이오닉 5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환경 경험 확대에 기여하였고,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나무 심기, 해안가 플로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아이오닉 포레스트 신시도의 운영을 지속하며, 숲과 나무를 통해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 [아이오닉 포레스트 신시도](#)

인도 자연환경 복원 및 바이오가스 시설 구축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2020년 9월부터 인도 첸나이 공장 주변의 취약한 지역사회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이를 통한 고용 기회 창출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 주변 지역(Irunggattukottai 내 SIPCOT 산업 단지)에 현대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에 자생하는 나무와 식물 총 5,200그루를 가꾸고, 5,000그루의 묘목을 식재하여 지역사회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며, 과실나무에서 재배한 과일을 판매하여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사회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과 법인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중 일부(약 40톤)를 재활용하여 1,500개의 책상과 벤치를 만들어 이를 필요로 하는 25개의 인근 지역사회 학교에 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정부 친환경 CSR 정책 대응을 위해 인도 현지 폐기물 처리 NGO인 Saahas와 함께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전환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연간 2,550톤의 지역사회 생활 폐기물을 활용해 생성된 바이오가스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입니다.

중국 현대그린존

현대그린존은 중국의 황사 발원 지역인 내몽고 지역의 마른 알칼리성(소금) 호수를 초지로 복원하는 글로벌 생태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부터 중국녹화기금회와 함께 내몽고 우란차부 차이오중치의 사막화된 호수 및 주변 퇴화된 초원 지역 67만㎡를 대상으로 현대그린존 3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3차 사업에서는 초원의 탄소 흡수량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공익숲 조성 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부빈기금회와 함께 인근 저소득 마을 소득증진을 위한 '탄소제로 숙박촌'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내몽고 아빠까지 차칸노르 지역에서 현대그린존 1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2차 사업에서는 정란치 보샤오페노르 및 하지노르 지역을 초지로 조성하고, 현지 정부에 사막화 방지 생태복원 기술을 이전하였습니다.

현대그린존 프로젝트에는 현대자동차 임직원 및 고객, 대학생 봉사단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현대자동차는 중국 사회과학원 CSR 연구센터의 '2021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자동차 기업 부문 1위에 선정됐으며, 중국 전체 기업 순위에서도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롱기스트런

세상을 바꾸는 가장 긴 달리기, 롱기스트런은 온/오프라인 연계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6년 롱기스트런 캠페인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10만여 명의 에코러너가 인천 수도권 매립지 아이오닉 포레스트 조성에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롱기스트런도 미세먼지 저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탄소중립 실천'으로 캠페인 지면을 확대하고 COVID-19 속에서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언택트런' 방식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참가자가 기부한 옷을 리폼하여 러닝 티셔츠로 제작하고, 비누로 기념 메달을 만드는 등 캠페인 전반에 친환경 요소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러닝과 다양한 친환경 미션을 달성하면 제공하는 마일리지로 친환경 기프트를 제공하는 '에코 마일리지 샵'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롱기스트런은 단순한 달리기가 아닌 '친환경 무브먼트'로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해 고객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함께 달려 나갈 것입니다.

사업장 인근 환경 보존 활동

현대자동차는 사업장에서의 생산활동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친환경 CSV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공장은 울산형 철새 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인 독수리를 보호함으로써 사업장 인근 생물 다양성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산공장은 영인산 식목원에 자산홍 3,300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전주공장은 인근 학교들에 모종과 비료를 지원하며 교내 녹색 커튼을 조성하고 식물을 활용한 친환경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남양연구소는 경기도청 미세먼지 정화 사업 참여 일환으로 화성시 마도면 인근에 측백나무와 단풍나무 50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1 유럽 해양 생태계 복원 및 업사이클링 활동
2 아이오닉 포레스트 신시도
3 중국 현대그린존



모빌리티 (Mobility)



운전 재활 지원을 위한 가상 운전 시뮬레이터

현대자동차는 2019년 2월,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가상현실 운전체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론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 시뮬레이터는 도심, 고속도로, 국도, 골목길 등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주행 연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국립재활원과 협력하여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훈련용으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과도 새롭게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가상 운전 체험을 통해 운전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운전 복귀와 이동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동 모빌리티 활용 소외지역 지원

현대자동차는 중동 지역의 빈부격차 해소 및 소외지역 지원을 위해 당사 모빌리티를 활용한 푸드뱅크 지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3월 UAE의 Ajman 도시를 시작으로 4월 말까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총 5개 도시(UAE- Ajman/Sharjah, 사우디-Riyadh/Jeddah/Dammam)에 현지 푸드뱅크 및 대학교와 함께 당사 모빌리티(스타리아)를 활용해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에 영양키트를 포함한 식자재 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라마단 기간에 맞추어 빈부 격차, 식자재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사 모빌리티(스타리아)를 각 도시의 NGO 기관에 기부하여 활발한 기부활동과 이동성을 도왔으며, 각 지역의 4개 대학교 및 지역 봉사단체와 연합하여 총 2,000박스의 기부 식량/물품 패키징 및 운반 등의 봉사활동을 함께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공유하였습니다.

셔클

‘셔클’은 기존에 불편함이 많던 일상적인 근거리 이동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2021년부터 서울 은평과 세종시에서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셔클’은 지역 이용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모빌리티를 제공하였고, 2022년 4월까지 총 340,483명이 탑승하였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셔클’을 이용하면서 기존에 느낄 수 없었던 교통의 편리함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으며, 해당 경험은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경기도형 DRT 시범사업을 통해 파주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 서비스하던 커뮤니티 모빌리티의 형태가 아닌 대중교통과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셔클’은 대중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셔클’은 경기도 지역 곳곳에 DRT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 특화된 서비스 또한 준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휠세어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화 키트 세어링 휠세어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주요 교통시설 거점과 서울·부산시 전역, 국내 3대 공항인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수동휠체어 전동화 키트를 단기 무료 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에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협력, 국내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경주에 신규 휠세어 대여소를 오픈하였고, 보호자조작형 신규 키트를 도입하여 고령의 이동약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휠세어는 ‘여행의 벽과 턱을 허물다’를 가치로 장애인 여행 활성화와 배리어프리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 제작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4년간 2,983명의 교통약자가 휠세어와 여행을 함께 하였습니다.

🔗 현대자동차그룹 휠세어 - 장애인 여행의 벽과 턱을 허물다

H-스페셜 무브먼트 프로젝트

H-스페셜 무브먼트는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내 특수학교 3개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에 맞춤형 스타리아 장애인 특장 차량을 기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며, 이동권 취약 계층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통학차량 특별케어 비포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청한 학교 대상으로 차량 안전 점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동들의 통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브라질 Dental Trailer Sorriso Cidadang

현대자동차 브라질 생산·판매법인인 2014년부터 피라 시카바 금속노동조합(STMP)와 함께 ‘Sorriso Cidadang(시민의 미소)’라 이름 붙인 이동식 치과 진료 트레일러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COVID-19 후회 상황에 따라 1,789명의 피라 시카바 소방관, 경찰관 등을 주로 치료했으며 2021년까지 누적 5만 9,30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Drive-in MOVING THEATER

현대자동차와 현대모터클럽은 2015년부터 꾸준히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 이동식 스크린을 설치하고 영화를 상영하는 ‘무빙 시어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COVID-19 팬데믹 속에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COVID-19로부터 안전한 ‘드라이브 인 무빙 시어터(자동차 극장)’ 형식으로 전환해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외 계층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최신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봉사단원들이 직접 조리하고 포장한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성남에서 지역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동차 극장을 진행하였고, 2021년에는 장수군청, 영양군청, 영덕군청과 연계하여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자동차 극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 중동 모빌리티 활용 소외지역 지원
2 여행의 벽과 턱을 허물다 휠세어
3 Drive-in MOVING THEATER



미래세대 (Hope)



북미 Hyundai Hope on Wheels

1998년부터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은 딜러와 함께 Hope on Wheels 캠페인을 2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Hope on Wheels는 소아암 연구를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아이들이 더 이상 암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21년 말 누적 기부금은 총 1억 8,500만 달러(약 2,265억 원)를 기록하였습니다.

호주 Hyundai Help for Kids

Help for kids는 현대자동차 호주판매법인과 딜러들이 차량 판매 기여를 통해 호주의 어린이들과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 지원뿐 아니라 차량을 보조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 Australia를 포함해 총 10개의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Help for Kids를 시작하며 모금된 기부금은 2020년 기준 천만달러를 넘어섰으며,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Hope'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H-모빌리티 클래스

현대자동차는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위한 H-모빌리티 클래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H-모빌리티 클래스는 차량 전동화,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 확산과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우수 수강생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 및 채용 혜택(서류전형 면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연료전지, 배터리, 전력 변환, 모터 기술 등 차량 전동화 분야 학습 과정과 인지, 판단, 제어,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등 자율주행 분야 학습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총 1,550명에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2022년에는 기존 차량 전동화 및 자율주행 분야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기구학, 제어, 센서, 추정, 로봇 관절각 등 로봇틱스 분야 학습 과정으로 교육 분야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미래자동차학교

2016년 교육부와 MOU 체결을 통해 시작된 중학교 자유학기제 미래자동차 학교는 청소년들이 이론과 실습, 체험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쉽게 이해하고, 관련 직업을 탐구해보는 특화 진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도부터 미래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수소 에너지와 친환경 미래도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미래자동차학교는 진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어촌 학교와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을 우선 선발하여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초등학교 대상 창의적 체험학습도 정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클린 모빌리티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전문적인 내용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교육합니다.

비전드라이브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미래세대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비전드라이브를 운영해 왔습니다. 비전드라이브는 임직원 강연 기부 비전멘토링과 명사 초청 강연 비전페스티벌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비전멘토링은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자동차의 역사와 기술, 미래 모빌리티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동차 산업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2021년에는 화성 서부 지역 27개 초등학교 6학년 2,257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전페스티벌은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명사와 대담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진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초통령' 유튜브 도티의 강연을 진행하였고, 온라인 동시 송출을 통해 보다 많은 친구들이 강연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현대드림센터

현대자동차는 개발도상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자동차 정비 기술을 교육하고, 역량 개발을 위한 인턴십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을 돕는 '현대드림센터'를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가나에 '현대드림센터 1호'를 개관한 것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페루까지 6개의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021년에는 7번째 공간인 '현대드림센터 케냐'를 개관하였습니다. 현대드림센터는 2022년 현재까지 누적 1,975명을 교육하여, 1,30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726명이 취업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숙련된 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Safe Road Traffic Project

러시아 권역에서는 2017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Safe Road Traffic Project'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지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 활동은 러시아 연방 교통경찰과 교육부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6,700명의 어린이, 16,900명의 학부모, 165개 어린이집과 14,500명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론칭하여, 비대면으로 더 재밌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키즈오토파크

현대자동차는 2009년 서울, 2019년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오토 가상체험관, 먼치 시합장, 오토버스 등 다양한 교육 시설에서 미니 전동차 주행 체험, 보행 교육, 교통안전 입체영상 관람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8,841명, 누적 178,976명의 어린이가 방문하였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의식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보카폴리 교통안전 노래이야기

현대자동차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2011년 승하차 및 사각지대 안전, 보행 안전, 자전거 안전, 신호등 표지판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용 애니메이션 <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이야기>를 제작하여 약 82개국에 방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기존 교육 내용에 카시트 착용 등 신규 교통안전 이슈를 추가하여, 교통안전 뮤지컬 애니메이션 <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노래이야기>를 신규 제작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재미있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며 교통안전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노래이야기





지역사회 (Community)



대한양궁협회 후원

현대자동차는 1985년부터 대한양궁협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은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포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 연구소의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불량 화살을 선별하는 슈팅머신을 개발하고, 부품 이상을 확인하는 정밀 분석 기술의 적용을 통해 선수들의 수준 높은 역량을 뒷받침하고 기록 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양궁 월드컵과 세계선수권 대회 등 대표적인 양궁 스포츠 대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2021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낸 양궁 국가대표선수단에 축하와 격려 지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H-결연시설 동행 임직원 봉사단

현대자동차에서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143개의 H-결연시설 동행 임직원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COVID-19 상황에 따라 대면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마을 농산물 구입, 농촌사랑상품권 및 기부금 전달의 형태로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일례로 울산공장에서는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결연하여 도배, 풍선아트, 손발 마사지 등 다양한 봉사활동 및 재능 기부를 실천하였습니다. 아산공장에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민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낙후된 농촌지역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명절맞이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개발 및 운영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향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임직원들과 함께 나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H-지역동행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노사가 지난 2018년부터 울산시 북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구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해왔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저소득 아동 선물꾸러미 지원 등 동별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경로당 어르신과 COVID-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COVID-19 예방접종센터 근무자에게 COVID-19 극복 응원 메시지와 함께 삼계탕 도시락 2,000개를 배분하였습니다. 겨울에는 지역 저소득층 32세대에 온수매트, 전기밥솥, 쌀 등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0곳에 김치냉장고를 지원하고 저소득 어르신 350가구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봉사활동휴

현대자동차는 COVID-19로 대면 봉사활동 진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당사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사업장에서 '친환경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임직원 약 500명이 가족들과 함께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1.2t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했으며, 인증자 수에 비례하여 묘목을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참여 가능한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솜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인형을 제작했고, 이를 지역 아동센터와 장애아동 시설에 기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COVID-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임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 H-결연시설 동행 임직원 봉사단
2 H-지역동행
3 봉사활동휴



글로벌 문화 예술 파트너십

현대자동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술을 향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유수의 예술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전시와 문화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MMCA)

한국 미술의 지평 확장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2014년부터 'MMCA 현대차 시리즈'를 통해 매년 국내 중진 작가 1인의 대규모 개인전 및 연계 세미나, 출판 활동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MMCA 현대차 시리즈 2021: 문경원 & 전준호 - 미지에서 온 소식, 자유의 마을'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된 '모바일 아고라'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동시대 주요 이슈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 차세대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그들이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선보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프로젝트 해시태그'를 함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2팀을 선발, 창작 지원금 3,000만 원과 레지던시 및 전시 기회를 제공하며 2021년에는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1'을 통해 온라인 웹 환경의 진화 속에서 빠르게 변화해가는 인간성에 대한 MZ 세대의 고민을 쇼케이스를 통해 선보인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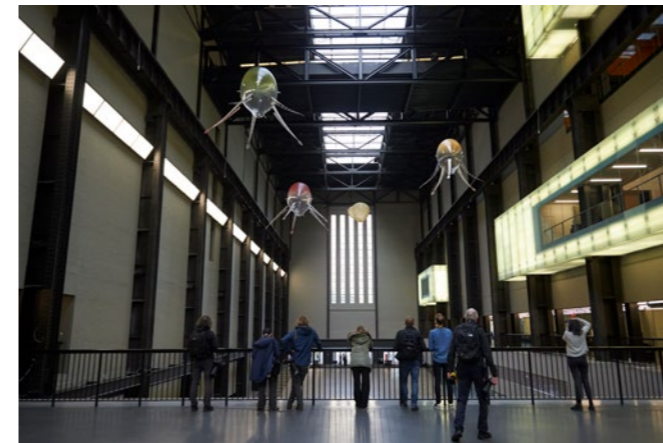


문경원 & 전준호, 《미지에서 온 소식, 자유의 마을》, 2021, 2채널 HD 영상 설치, 컬러, 사운드, 14분 35초. 작가 소장. 사진 이진철,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테이트 미술관(Tate)

테이트 미술관과의 장기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테이트 모던 중심부에 위치한 전시장 터바인 홀에서 전시 프로젝트 '현대 커미션(Hyundai Commission)'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현대 커미션: 아니카 이' 전시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작가의 비전을 바탕으로 테이트 모던 터바인 홀을 기계들과 공존하는 변화된 공간으로 선보였습니다. 기계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전시장을 비행하는 모습을 통해 기계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태계 내 존재할 수 있을지 등 미래 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트랜스내셔널(Hyundai Tate Research Centre: Transnational)'을 통해 전 지구적 관점의 문화-예술-역사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과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온-오프라인 개최를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와 협업을 지원했습니다.



Hyundai Commission: Anicka Yi: In Love With The World Tate Modern 2021. Photo © Tate (Ben Fisher Photography)

LA 카운티 미술관(LACMA)

LA 카운티 미술관과 함께 2015년부터 10년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영감을 전달하는 '더 현대 프로젝트(The Hyundai Project at LACM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파트너십 일환으로 'Barbara Kruger: Thinking of You. I Mean Me. I Mean You.'를 개최했습니다. 작가의 최대 규모 회고전인 이번 전시는 80~90년대의 대표작들을 신기술과 접목해 재해석하였으며 미술관 외부에서도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공공미술 작품을 다수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당사 아이오닉 5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Untitled (Car)> 작품도 탄생했습니다.

'Art + Technology' 전시와 'Art + Technology Lab' 후원을 통해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진취적인 전시를 선보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다양한 아티스트를 선정하고 창작 지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 선정 작가들은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Tom Sachs와 함께한 Rocket Factory에서 NFT를 발행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작가들이 현대자동차, 구글, 스페이스엑스, 스텔렉 등의 기술 자문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Barbara Kruger, *Untitled*, 2020, digital print on vinyl, courtesy of the artist and Hyundai Motor Company, installed as a part of *Barbara Kruger: Thinking of You. I Mean Me. I Mean You.*,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March 20, 2022-July 17, 2022, photo © Museum Associates/LACMA